



名門大에 안주 말고 인내와 노력 다하자!



본회는 지난 8월 27일 2008년 2학기 장학금 수여식에서 모교 재학생 1백10명에게 2억8천2백18만5천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관련기사 3~4면>

| 사진 李五峰논설위원

알림

10월 19일 일요일에 만나요

흠커밍데이 겸 서울대 가족 친목 등산대회

제30회 흠커밍데이 겸 서울대 가족 친목 등산대회를 오는 10월 19일 일요일 모교 투어를 겸해 거행합니다. 모교를 방문해 결실의 계절에 '견고 싶은 거리'를 걸으며 그동안 잊고 지내던 선후배·동기들과 좋은 만남과 추억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 ▲일 시 : 2008년 10월 19일 (일요일) 오전 9시
- ▲집합장소 : 모교 관악캠퍼스 대운동장
- ▲대회장소 : 모교 노천강당 앞 버들골 (안양 관악수목원에서 변경)
- ▲참가대상 : 동문 및 동문 가족
- ▲참가비용 : 없음
- ▲제공물품 : 도시락, 식음료, 우동, 기념품(동문 음악가 CD) 등
- ▲경 품 : 다량의 선물 추첨 (林光洙회장 승용차 제공)
- ▲문의전화 : 02)702-2233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林 光 洙
서울대학교총장 李 長 茂

관악춘추

立秋가 지나 하늘이 훌쩍 높아졌으나 캠퍼스는 우울하다. 향학에만 집중해야 할 젊은이들의 가슴이 답답하다. 치솟은 등록금 부담이 한 쪽 어깨를 누르고, '고용 빙하기'를 맞아 가물가물한 취업의 문이 다른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그런 시대적 불운한 환경 속에서도 관악캠퍼스엔 활력이 솟는다. 청명한 하늘로 활기가 피어오른다. 흑독한 여름이 가고 결실의 계절이 와 서다. 선배들의 후배에 대한 사랑 나눔이 장학금으로 실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2학기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다. 총동창회는 이날 재학생 1백10명에게 총 2억8천2백18만5천원을 수여하고 면학을 격려했다. 이로써 총동창회가 지금까지 지급한 장학금은 4천2백여 명, 62억여 원에 이른다. 동창회가 심혈을 기울여 건설 중인 장학

빌딩이 세워지면 훨씬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장학금은 턱없이 모자란다. 수요에 비해 모금액은 미미하기 짝이 없다. 경제가 어렵고 삶이 각박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평생 모은 재산을 장학금으로 쾌적하거나 이름을 숨긴 채 기탁하는 등 장학금 기부 기운이 피어나고 있는 있지만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아직 멀었다. 미국의 대학 수준은 못되더라도, 서울대에서는 학비가 없어서 향학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학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젊은 희망이 돈 때문에 꺾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최고의 인재 산실 서울대의 상처이자 국가 자존심의 손상이다.

활력이 솟는 관악캠퍼스

장학금은 교육투자다.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 아름답고 값진 투자, 장학금 기부운동이 요원의 불꽃처럼 일어나야 할 것이다.

나눔의 실천이 넓게 퍼져나가면 관악캠퍼스는 더욱 밝고 활기가 넘치게 될 것이다. 서울대가 세계 일류대학으로 가는 길도 빨라질 것이다. 살맛 나는 세상이 될 것이다. (金鎭銅논설위원)

우리나무광장

한가위다. 수확의 계절처럼 우리 모두 넉넉한 일상을 보냈으면 좋겠다. 추억과 상상으로 씨줄과 날줄을 잇는 것이 인생사라고 하지 않았던가. 유난히 뜨거웠던 지난 여름 베이징올림픽의 이런 장면들을 추억하는 것 또한 아름답고 힘찬 기운을 우리한테 꼭 전해줄 것 같다.

#장면1 : 여자핸드볼 3~4위전 종료 50초 전, 한국이 헝가리를 33 대 28로 앞선 상황이었다. 임영철 감독이 작전타임을 불렀다. 마지막 남은 시간을 뽐 선수들 이름을 불렀다. ‘오영란’ ‘오성욱’ ‘허순영’ ‘홍정호’ ‘박정희’. 모두 30대 고참으로 엄마선수들이었다. 이번 대회가 끝나면 올림픽무대엔 더 이상 설 수 없는 선수들을 위한 배려였다. 눈물로 쓴 ‘우생순 2탄’ 바로 그것이었다.

그들은 올림픽에 오기 전, 뛰면서도 ‘이게 마지막이구나’ 선수촌 카페 앞에 가서도 ‘여기도 마지막이구나, 모든 게 다 마지막이구나’ 이런 얘기를 나눴다고 한다. 그들은

“어렸을 땐 하라고 해도 하기 싫어서 안 할 때도 있었는데, 이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 됐다”고 했다.

#장면2 : 8월 24일 오전 10시17분56초. 39살 이봉주가 베이징올림픽 메인스타디움 마라톤 결승점을 밟은 시각이다. 2시간17분대 기록으로 비록 28위에 그쳤지만 39번째 마라톤 완주였다. 초반 아프리카 선수들의 빠른 페이스를 쫓아가지 못해 40위권으로 밀려난 그는 막판 특유의 지구

감동의 베이징올림픽

李 相 起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본보 논설위원



력을 보이며 10명 이상을 제치고 20위권에 진입했다.

#장면3 : 9전 전승의 기록으로 우승한 야구대표팀의 우승은 감독과 선수 그리고 국민들 성원이 함께 이룬 교향악이었다. 당시 신문제목들이다. ‘세계야구 천하통일, 베이징의 전설’ ‘하나 된 4천8백만, 함께 뛰고 함께 웃었다’ ‘야구의 마지막 올림픽, 한국 최초 금메달’ ‘끈끈한 팀워크의 힘, 미국 쿠바 일본 콧대 납작’ ‘한방 이승엽 국민타자 존재감, 류현진 김광현 국제급 괴물로’ ‘상대 허찌른 역발상 승부사 김경문 감독’ ‘선수들 벅찬 소감,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랬다. 8월 넷째 토요일 밤 대한민국은 한여름 밤의 열기를 그렇게 감동으로 승화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어깨가 절로 으쓱해진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자못 숙연해진다. 승부의 세계가 감동의 순간으로 이어질 때 가능한 일들이다.

올 한가위 이런 상상 또는 추억은 또 어떨까?

30~40년 전 우정을 나누던 그때 그 친구, 둘이 간신히 걸어다닐 코스모스길, 초가을 따가운 햇살, 고추잠자리, 그 집 앞...

관악시단

불꽃놀이

李 秀 千
(사회65-72)前한국장학회 이사장·시인

北京이
응단 폭격을 받는다

만리장성은 놀라
높고 긴 벽을 허물고

지구촌은 흔들거리다가
제 얼굴로 돌아갈 것이니

보아라 놀라워라
불꽃이 풀어놓은 자유를

다가오는 나침의 시대로
변방에 폭죽이 다시 터지는 날

히말라야에서 白頭까지
불기둥은 산맥처럼 일어나리니

비무장한 바람이 승리하고
난쟁이 장군들은 뜨겁게 포옹하리라

동문칼럼

서울대 ‘대의협력본부 부분부장’이라는 보직을 맡고 있다 보니 외국 대학의 총장 등 관계자를 만나고 서울대를 소개할 일이 매우 많다. 그런데 이때 필자는 서울대가 ‘꼴판다’는 느낌을 왕왕 갖게 된다. 물론 교수나 학생의 능력 때문은 아니다. 서양의 저명대학은 자신의 역사가 수백 년에 이른다고 뽐내고 동양의 저명대학도 백년을 가볍게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데, 서울대는 학교가 1946년에 만들어져 그 역사가 60년을 약간 넘었다는 공식안내 자료를 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외국 대학의 역사를 들어보면, 그 시발점은 자그만 교육기관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개교시 현재의 이름을 쓰지 않았던 경우도 흔했고 여러 개의 작은 교육기관이 현재의 대학으로 합쳐진 경우도 많았다. 이와 다른 차원이지만 1946년 설립된 국내 사립대학인 성균관대는 자신이 1398년 설립된 조선왕조의 국립교육기관인 성균관의 계승자라고 자임하며 수년 전 개교 6백년 기념행사를 한 바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역사전공자가 아니지만 서울대의 역사를 반추해보게 됐다.

다 알다시피 ‘국립서울대학교’라는 이름의 기관이 만들어진 것은 일제 강점에서 해방된 후인 1946년이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서울대의 구성기관이 된 여러 개별 학교가 존재하고 있었다. 법과대학의 예를 들면 구한말 1895년 최초의 근대적 국립법학교육기관이자 법관연수원으로 만들어진 ‘법관양성소’가 있다. 서울대 법대동창회는 이 기관을 서울대 법대의 시원으로 보고 있고, 이 기관의 졸업생을 동창회원으로 등록하고 있다. ‘법관양성소’는 한일강제합방 이후 ‘경성전수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 등으로 개편됐고, 이는 해방 후 서울대로 흡수된다. 그리고 농과대학의 전신은 1904년 세워진 ‘농상공학교’이니 농과대학도 1백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한다.

그런데 이러한 계산법이 채택되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 1924년 설립된 ‘경성제국대학’ 때문일 것이다. 일제시대에 존재했던 개별 단과대학의 일부는 이후 경성

제대로 흡수되는데, 서울대의 시원을 단과대학의 시원으로 올리게 되면 그 단과대학을 흡수한 경성제대도 서울대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울대는 개별 단과대학 중 최초의 개교일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선언한다고 해서 서울대가 경성제대의 후예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이는 일제 강점기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의 뿌리는 1919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또 말해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법관양성소’, ‘경성법학전문학교’는 경성제대로 흡수되지도 않았고, ‘법관양성소’의 제1회 졸업생은 李 雋 열사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曹 國
(공법82-86)
모교 법학부 교수

남은 문제는 서울대의 단과대학 중 어느 단과대학의 시발점을 서울대 전체의 시발점으로 삼을 것인가이다. 의과대학은 1885년에 설립된 국립의료원인 ‘광혜원’, 1897년 개설된 ‘종두의양성소’ 및 1899년 설립된 최초의 본격적 근대의학교육기관인 ‘의학교’ 등을 자신의 뿌리로 설정한 바 있다. 그렇지만 광혜원의 경우 미국 선교사 알렌이 설립했고, 1903년 광혜원의 의료진과 시설은 세브란스로 이전됐기에, 연세대 의과대학은 오래전부터 자신이 광혜원의 적통이라고 자부해왔다. 이 점에서

서울대의 ‘개교 원년’ 찾기

연세대에 대해 ‘역사전쟁’을 선포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 서울대가 굳이 연세대와 이러한 다툼을 벌일 이유는 없지 않을까 한다.

이상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필자는 ‘법관양성소’가 설립된 때인 1895년을 서울대의 시발점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때 서울대의 역사에서 개별 단과대학이 경성제대에 흡수되게 된 배경을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서술해야 하는 동시에, 개별 단과대학 개교에서 국립서울대학교로 이르기까지 여러 난관, 굴욕, 단절 등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현재의 서울대가 있음을 밝히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필자는 1895년을 서울대의 ‘개교 원년’으로 재설정하고 2015년에는 서울대 1백20주년, 즉 두 번째의 還曆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자고 공식 제안하며, 서울대와 동창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가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

서울大同窓會報

참여 · 협력 · 영광

발행인 林 光 洙
편집인 孫 一 根
편집주간 許 璫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8-2
(임시주소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연구공원 219호)
• 전화 (02) 702-2233 팩스 (02) 886-2218
• e-메일 snua@paran.com

논설위원 金哲洙, 朴世熙, 林炯斗, 金鎮銅, 李炯均, 宋丙洛, 安炳燦, 丘月煥, 宋鎮赫, 金好俊, 洪性萬, 李五峰,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慶衡, 李元馥, 金鍾勳, 文昌克,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李元燮, 姜天錫, 嚴基永, 裴仁俊, 朴時龍, 辛京珉, 尹在錫, 鄭世洛, 李東植, 朴聖姬, 曹炳品, 朴勝俊, 許英燮, 金玄浩, 鄭興實, 李東官, 趙在鏞, 金鎮國, 崔英勳, 李容式, 李相起, 蔡耕玉, 許文明

편집장 安興燮 편집부 기자 表智媛, 金南柱, 邊榮顯 광고부장 金千鶴

“최고의 고통 이겨내 최후의 승리자되길”

올해 재학생 4백20명에 장학금 10억5백여만원 전달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8월 27일 모교 관악캠퍼스 연구공원 1층 강당에서 2008년 2학기 장학금 및 특기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해 모교 재학생 1백10명에게 2억8천2백18만5천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특기·기금 장학금 수여 현황 4면 참조〉

이로써 2008년 1·2학기 장학금으로 본회가 2백19명에게 5억7천1백20만1천원을 수여했으며, 각 단과대학(원)동창회가 2백1명에게 4억3천3백87만8천원을 전달함으로써 올해 모교 재학생 4백20명에게 10억5백7만9천원이 장학금으로 지급됐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검절약하며 나보다 남을 위한 나눔과 보살핌의 삶을 통해 모교 발전과 후배사랑을 실천해 오신 특기 및 기금장학금 출연 동문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장학발당이 완공되면 동창회 재산이 1천억원 이상이 되며,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도 획기적으로 증대되고 모교 발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동문에 의해 활발하게 추진되는 모티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학생들에게 “요즘 어둡거나 베이징올림픽이 화제인데, 올림픽 정신은 승자나 패자 누구에게나 열심히 선전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으나 결국 어느 종목에서든 최후의 승리자는 반드시 한 사람 뿐”이라고 말했다.

이윽고 “여러분은 서울대에 입학함으로써 일단 타대학생보다 좋은 위치에는 있지만, 이에 안주하지 말고 노력해서 금메달리스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달라”고 말하고 “최고가 되기 위해선 그에 걸맞는 최고의 선택과 최고의 고통과 최고의 인내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교 金信福부총장은 격려사에서 “李長茂총장께서 취임한 지 2년이 됐는데, 그동안 모교는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2025년까지 세계 10대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해 1백여 명에 달하는 세계적인 외국인 교수를 유치, 채용하는 작업도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모교가 명실상부한 세계 초일류대학이 되도록 동문 여러분께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돼 달라”고 전했다.

邊宰均(법학4년)군은 장학생을 대표해 “인생과 사회를 창조적으로 설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갖고 닦으며, 선배님들의 따뜻한 격려를 바탕으로 스스로를 더욱 다듬고 성장시켜 나가는 서울대인이 되겠다”고 답사했다.

이어 축가로 모교 재학생 趙玟皓(성악05입)군이 盧예진(기악05입)양의 반주에 맞춰 ‘희망의 나라로’를 불렀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洪性大부회장 겸 관악회 상임



林光洙회장이 장학금을 수여하며 재학생들을 격려했다.



모교 金信福부총장이 장학금을 전달했다.



孫一根상임부회장이 장학금 수여



모교 張在盛학생처장이 장학금 전달

이사, 李金器·金讚淑·鄭潤煥·孔大植·南正鉉·劉常夫·李鍾基·鄭忠始·鄭八道부회장,



洪性大특기장학금 수여



金潤澤특기장학금 수여



李金器특기장학금 수여



鄭潤煥특기장학금 수여



劉常夫특기장학금 수여

재단법인 관악회 安聖哲·金秉順이사, 許瑄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또 모교 金信福부

총장, 張在盛학생처장, 朱鍾南기획실장, 南益鉉발전기금 상임이사를 비롯해 보건대학원동창회 姜寅求회장, 사대동창회 金昌哲상근부회장, 양전장학회 金潤澤이사장, 암코테크놀로지코리아 金綏雄고문, 도화종합기술공사 文喜億부회장, 가천의과학대 尹正哲교수, 덕인양행 李鍾憲사장, 吳應鉉·秋景玉특기장학회 秋景玉여사, 신양문화재단 鄭鍾原실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表)

본회 일반장학생 명단

(괄호안 전공·학년)

▲인문대 金眞英(종교학 석사과정)·裴秀淨(국사학3)·成管淨(노문학3) ▲사회대 金賢洙(경제학 석사과정)·孔새미(심리학4)·鞠承珉(정치학4)·金다래(사회학4)·鄭珉至(외교학4) ▲자연대 沈美敬(통계학4)·白東鉉(수리과학3) ▲간호대 金씨래(간호학4) ▲경영대 權福喆(경영학3) ▲공대 朴志訓(지구환경시스템4)·白珉妍(산업공학4)·河在承(컴퓨터공학4)·李奇旭(기계항공공학3)·李準堦(조선해양공학3)·許丙濤(전기·컴퓨터공학1) ▲농생대 朴芝恩(식물생산과학4)·柳恩知(농경제사회학2) ▲미대 尹上赫(디자인학3) ▲법대 李河俞(법학 석사과정)·邊宰均(법학4) ▲사대 金熙珍(특수교육 석사과정)·崔志勳(영어교육4)·金順鐸(체육교육4)·尹弼映(수학교육2) ▲생활대 李은혜(소비자아동학4) ▲수의대 金祉圻(수의학4) ▲약대 崔源(약학3) ▲음대 金多恩(기악4) ▲의대 金辛德(의학4)·卞相詠(의학2) ▲치대 姜姬英(치의학 석사과정) ▲한대원 李榮(조경학 박사과정)

각 단과대동창회 장학금 99명에 2억1천9백95만원

▲간호대동창회(회장 李倫京)=6명 : 5백만원 ▲법대동창회(회장 金正國)=27명 : 6천3백61만4천원 ▲사대동창회(회장 卞柱仙)=4명 : 9백99만원 ▲상대동창회(회장 洪龍燦)=41명 : 9천8백34만9천원 ▲수의대동창회(회장 鄭英彩)=4명 : 1천만원 ▲약대동창회(회장 李世榮)=5명 : 5백만원 ▲치대동창회(회장 洪禮杓)=4명 : 1천2백만원 ▲대학원동창회(회장 河斗鳳)=4명 : 1천2백만원 ▲한대원동창회(회장 姜吉夫)=4명 : 4백만원

2008년 2학기 특지·기금 장학금 수여 현황

(장학기금 출연순)

장 학 회	설 립 자	수 혜 자	장 학 금
洪性大특지	洪性大(수학57 - 63) 학교법인 상산학원 이사장 관악회 상임이사	朴芝源(법학3년)	3,000,000
		襄하은(영문학3년)	3,000,000
		朴寶羅(경제학2년)	3,000,000
		朴潤雅(법학2년)	3,000,000
		宋소라(국어교육2년)	3,000,000
		高錫範(법학1년)	3,000,000
		趙康勛(수리과학1년)	3,000,000
亞南특지	金柱津(법학54입)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회장	金泰君(치의대학원1년)	4,500,000
		高秀然(식품영양학2년)	3,287,000
		金世英(언론정보학2년)	2,070,000
		金昭晶(경제학2년)	1,700,000
		金슬이(사회과학1년)	2,811,000
李吉女특지	李吉女(의학51 - 57) 경원대 총장	洪秀潁(생명과학3년)	2,501,000
		鄭文珠(화학생물공1년)	3,205,000
吳東英· 金讚淑특지	吳東英(조선항공54입)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 부인 金讚淑(치의학56 - 60) 청아치과병원 이사장	沈載賢(치의대학원4년)	3,000,000
		金來潤(치의대학원3년)	3,000,000
		朴炫朱(치의대학원2년)	3,000,000
		洪浩禧(치의대학원1년)	3,000,000
楊銀淑특지	故 楊銀淑(간호51 - 54) 前대한간협 재정위원장	張智恩(간호학3년)	2,000,000
鄭八道· 李慈倬특지	鄭八道(AIP 1기) 코리아랜드캄파니 회장 부인 李慈倬여사	金智瓊(산업공학4년)	2,443,000
		金秀玄(경영학4년)	977,000
		李承南(법학2년)	2,537,000
		韓昇我(경영학2년)	2,537,000
李金玉· 黃海根특지	黃海根(토목공학54 - 60) 동일기술공사 회장 부인 故 李金玉여사	崔芝榮(법학4년)	2,324,000
李鍾基특지	李鍾基(경영69 - 73) 상영무역 사장	金章植(법학3년)	2,000,000
		南東勳(경영학3년)	2,000,000
鄭哲圭특지	鄭哲圭(화학공학48 - 52) 신앙문화재단 이사장	金旻珍(건축학 석사)	2,000,000
		徐相敏(컴퓨터공학 석사)	2,000,000
		徐賢珉(컴퓨터공학 석사)	2,000,000
化學科특지	화학과동창회	黃在浩(화학4년)	2,821,000
金秉順· 李志鎬특지	金秉順(AMP 4기) 한국구아노 이사 이들 李志鎬(의학77 - 83) 모교 의대 정형외과 교수	金好燮(의학4년)	2,000,000
		李鍾赫(법학4년)	1,000,000
		玄貞峴(의학4년)	1,000,000
		徐尙泳(법학3년)	1,000,000
孫致武특지	故 孫致武(대학원70졸) 前모교 지질학과 명예교수	任多慧(지구환경4년)	1,300,000
		林志勳(지구환경4년)	1,300,000
林光특지	林光洙(기계공학48 - 52) 임광토건 회장	崔治鉉(의학4년)	1,500,000
吳仁錫특지	吳仁錫(행정58 - 62) Philip Investment 회장	李東奎(경제학4년)	1,868,000
安聖哲· 孫潤淑특지	安聖哲(행정58 - 63) 유니온테크 회장 부인 孫潤淑여사	李振赫(법학3년)	2,265,000
鄭忠始특지	鄭忠始(화학공학72 - 76) 오미아코리아 회장	安珠璉(화학생물공4년)	2,847,000
郭永驤특지	郭永驤(토목공학56 - 60) 도화종합기술공사 회장	鄭有眞(화학생물공2년)	3,113,000
牧村5父子 특지	故 金道純(법학43 - 47) 前법제처장·변호사 3남1녀	金眞兒(경영학4년)	2,324,000
		金基浩(법학3년)	2,379,000
		南承廷(법학2년)	2,537,000
李元珪특지	李元珪(농생물학58 - 63) 한산이씨 도봉구 화수회장	李在善(국사학3년)	1,000,000
郭東憲특지	郭東憲(법학61 - 65) 변호사	鄭智鏞(산림과학3년)	2,821,000
李相範· 高姪錫특지	李相範(행정53 - 57) 변호사 부인 高姪錫여사	孫炯璽(응용생물2년)	3,000,000
保健大學院 특지	보건대학원동창회	孫德周(환경보건학 석사)	3,746,000
數學科특지	수학과동창회	姜恩惠(수리과학4년)	1,000,000
		林城完(수리과학4년)	1,000,000
		朱成宰(수리과학1년)	1,000,000
金潤澤특지	金潤澤(경대원68 - 70) 양천장학회 이사장	李承潤(경제학2년)	1,500,000
		李禎淵(지구환경1년)	1,500,000
姜信浩특지	姜信浩(의학46 - 52) 동아제약 회장	李鍾準(인문계열2년)	2,537,000
吳應鉉· 秋景玉특지	故 吳應鉉(섬유공학67 - 71) 前반월나염사법단지 대표 부인 秋景玉여사	金東河(재료공학1년)	3,205,000
崔喜藏특지	崔喜藏(섬유공학58 - 64) 대성사 대표	李相旻(전기공학4년)	2,847,000
그린특지	농대 그린장학회	申享媛(식물생산2년)	1,000,000
李鍾憲· 申甲淳특지	李鍾憲(경제59 - 65) 덕인양행 사장 부인 申甲淳여사	金鐘大(경제학2년)	1,900,000
趙炳祐특지	趙炳祐(섬유공학59 - 64) 유봉실업 회장	金旻奎(수의학2년)	2,000,000

장학빌딩 건립기금 출연 이어져

南正鉉동문 1억원 추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1억원을 출연한 본회 南正鉉(건축57 - 61 대우테크)부회장(사진)이 지난 8월 27일 추가로 1억원을 쾌척했다.

앞으로 ‘南正鉉특지장학회’ 명의로 총 2억원의 기금을 운영하게 돼 더 많은 재학생에게 장학금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南동문은 한국공학원 부회장,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장, 대우엔지니어링 회장, 한국산악회장,



동문 골프대회 집행위원회

모교 발전기금 증대 위해 노력키로

본회는 지난 8월 8일 서울 한국 언론재단 19층 매화홀에서 모교 발전기금 모금을 위한 제4회 동문 골프대회 집행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林光洙대회장, 李長茂 명예대회장, 孫一根·洪性大 부대회장, 徐廷和 집행위원장, 申榮均·朴孟浩·孔大植·鄭潤煥·金鮮東·金鳳九·李炯均·朴英俊·朴榮敏·金花中·辛鉉雄·辛東烈·朱鍾南위원, 모교 발전기금 南益鉉상임이사, 본회 許 璲사무총장, 宋榮德사무차장 등이 참석했다.

林光洙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李長茂총장께서 취임하신 후 열심히 노력하고 뚝 결과 약 1천6백억원의 발전기금을 추가로 모금하는 성과를 올린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에 발맞춰 동창회도 발전기금 모금 분위기 조성을 데마로 골프대회를 개최해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많은 동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徐廷和집행위원장은 동문 골프대회 총기획위원장에 신영예술문화재단 申榮均이사장, 문화

장 학 회	설 립 자	수 혜 자	장 학 금
金相廈특지	金相廈(정치45 - 49) 삼양사 회장	崔東新(나노과학 석사)	3,483,000
		李正大(심리학4년)	1,807,000
		金娜演(동양화2년)	3,386,000
일산회특지	농대 일산회	趙晟友(언어학2년)	2,537,000
暉泉특지	李在源(상학55 - 59) 한국규빅 이사	李承柱(농경제학1년)	2,000,000
嚴秉潤특지	嚴秉潤(외교60 - 64) 세림테크 회장	金貞娟(화학 석사)	2,200,000
李金器특지	李金器(약학55 - 59) 일동제약 회장	沈辰喜(약학4년)	3,000,000
朴冠鎬· 申明珪특지	故 朴冠鎬(화학교육47 - 51) 前동국대 명예교수 부인 申明珪(생물교육48 - 54) 관악회 이사	朴斗燦(과학교육 석사)	3,746,000
		田丞惠(과학교육 석사)	3,746,000
鄭潤煥특지	鄭潤煥(임학56 - 62) 일성화학 사장	李惠珍(산림과학 석사)	1,400,000
		朴昭熙(산림과학2년)	1,400,000
南正鉉특지	南正鉉(건축57 - 61) 대우테크	馬承範(건축학 석사)	3,483,000
劉常夫특지	劉常夫(토목공학60 - 64) 포스코 상임고문	車유진(경제학2년)	2,167,000
鄭啓泳특지	鄭啓泳(상학61 - 66) 원일전선판매 회장	曹薰會(지구환경3년)	2,000,000
池源哲특지	池源哲(축산73 - 77) 이지바이오시스템 회장	金權道(동물공학3년)	2,511,000
		安賢珠(동물공학3년)	2,889,000

공대동창회장 등을 역임했다.

崔正吉동문 총 2천만원

지난 7월 30일 경인강재 崔正吉(금속공학52 - 56)회장이 본회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1천만원을 추가로 출연했다.

지난 2006년 5월 1천만원을 기부한 崔회장은 ‘崔正吉기금장학회’ 명의로 총 2천만원의 기금을 운영하게 됐다.

특지 및 기금장학금 출연자는 본회 장학금 수여식 때 직접 모교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게 된다.

위원장에 삼부토건 趙南煥회장, 재정위원장에 미래국제재단 金鮮東이사장, 섬외위원장에 한국코트렐 李達雨회장, 홍보위원장에 일성화학 鄭潤煥대표·동양물산 尹汝斗부회장, 지원위원장에 민음사 朴孟浩회장, 경기위원장에 고려대 朴榮敏교수, 종간사장에 본회 朴英俊감사를 임명했다.

회의 결과 대화장, 고문 등은 5백만원, 각 위원장은 4백만원, 위원은 2백만원 등을 분담하고 대회 출전 동문들에게는 참가비로 30만원만 받되 발전기금 출연을 적극 유도해 금년에 모교에 3억원 이상을 목표로 모금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모교 발전기금은 오는 10월 14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세계로 도약하는 서울대, 감사와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참고로 모교 발전기금 재산 총액은 6월말 현재 2천6백15억원으로 2006년 7월에 비해 1천5백22억원이 증액됐다. (南)

2009년 포켓용 DIARY·탁상용 달력 드립니다

본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포켓용 DIARY’와 ‘탁상용 캘린더’를 준비했습니다.

동창회 DIARY와 캘린더는 모교 발전과 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해 평생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해 주신 동문께 10월 중순부터 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2009년 己丑年의 설계와 구상을 새롭게 변신한 동창회 DIARY에 기재해 보람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동창회를 사랑해 주시는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대총동창회



상과대학동창회

모교에 장학금·학술연구비 전달

상과대학동창회(회장 洪龍濤)는 지난 8월 29일 서울 삼성동 포스코센터 잔디에서 2008년 2학기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모교 재학생(경영학과 21명, 경제학부 20명)에게 총 9천8백34만9천원(연장재단 장학금 포함)을 전달했다. 또 학술연구비로 경영대 및 경제학부 대학원에 각각 1천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1억1천8백34만9천원을 지원했다. 洪龍濤회장은 ‘지금 잠자면 꿈을 꿀 수 있을지 몰라도 깨어 있으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을 인용하며 장학생들에게 “지난 수천년 문명을 훨씬 능가하는 변화의 시대에 주인공인 여러분이 높은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

해달라”고 당부했다. 모교 경영대학 郭守根학장은 “여러분들에게 공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라며 “선배님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이어받아 늘 이웃을 생각하며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창회 장학금은 기금과 매년 특지자들의 출연에 의해 마련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물류협회 安台鎬(경제45-53) 명예회장, 金正銀(경제52-56)前오라관광 고문, 원일전선관매 鄭啓泳(상학61-66) 회장 등 10여 명의 특지자가 참석해 40여 장학생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홍울회

서울·가평서 작품전

미대 출신 여성 동문들로 구성된 홍울회(회장 孫文子)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서울 태평로 조선일보 미술관에서 제31회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어 경기도 가평 남송미술관으로 장소를 옮겨 9월 29일까지 2차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沈竹子(회화

49-55)·李信子(응용미술50-55)·全明子(회화53-57)·金時用(응용미술56-60)·金芝烈(회화56-60)·金載姪(회화56-60)·鄭善嬋(응용미술56-60)·玄淑子(회화56-60)·姜瑛秀(회화57-61)등문 등 70명의 회원과 중국 초대작가 5명 등이 작품을 출품했다. 1980년에 결성된 홍울회는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 인도 등 해외에서 매년 작품전을 개최하며 활발한 활동을 보여왔다.

사범대학동창회

순화동 사무실 오픈

사범대학동창회(회장 卞柱仙)는 지난 9월 10일 서울 중구 순화동 215번지 바비엡Ⅲ 빌딩 1807호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현재 사대동창회는 동창회관을 마련하기 위해 기금을 모금 중이며 최근 발행된 159호 회보를 통해

30억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회관은 서울 시내에 위치한 건물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임대사업을 통해 모교와 재학생을 도울 계획이다. <문의 : 720-8116>

부산지부 상대동창회

李啓植원장 특강

부산지부 상대동창회(회장 李龍二)는 지난 7월 9일 부산 시내 늘

봄호텔에서 朴燦穆(상학54-58) 고문, 부산시 鄭樂亨(경제74-78)정무부시장, 金世淵(국제경제91-96)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문모임을 가졌다. 李龍二회장의 인사말과 내빈소개에 이어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장, 제주도 정무부지사 등을 역임한 부산발전연구원 李啓植(경제67-71)원장이 ‘부산의 국제화’란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AMPFRI동창회

정선서 수련회 개최

식품 및 외식산업보건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尹煥植)는 지난 8월 16~17일 강원도 정선에서 40여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하계수련회를 개최했다. 첫날은 주전 썰다리마을 다하누촌 방문과 영월 선암마을, 선돌바위, 단종의 유배지인 청령포를 관광했다. 둘째 날은 동강 문화마을에서 섭세까지 약 15km 거리의



래프팅을 즐기며 동문간 우의를 다졌다. 이번 행사를 위해 尹煥植회장, 신일산(14기)수석부회장, 裴明燮

(9기)사무총장, 김종기(14기)·李東沄(15기)·김재원(17기)·길경숙(20기)회원 등이 금품을 협찬했다. (南)



동문작품 지상전시회

張和震作

‘溫故知新 series-3’, Acrylic·Silkscreen·Smoke on Canvas, 90×90×4cm, 2008.

〈작가약력〉

- ▲69~73년 모교 회화와 졸업
- ▲74~77년 모교 대학원 졸업
- ▲80~82년 크랜브룩 아카데미 오브 아트 대학원 졸업
- ▲80~04년 개인전 9회
- ▲02~04년 대학미술협의회 회장
-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소위원장, 국립현대미술관 운영위원, 이화여대 예술대학장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의대 22회 동기회

9월 17일 홈커밍데이

의과대학 22회 동기회(회장 金相祐)는 졸업 40주년을 맞이해 오는 9월 17일 모교 연건캠퍼스에서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740-8183〉

전기동문회

9월 20일 홈커밍데이

전기동문회(회장 鄭泰豪)는 오는 9월 20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011-9013-8565〉

AFB동창회

9월 22일 골프대회

패션산업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崔炳五)는 오는 9월 22일 경기도 용인 코리아CC에서 제4회 AFB동창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880-2529〉

동승클럽

10월 10일 해외여행

문리대 65학번 동승클럽(회장 宋常熙)은 오는 10월 10일 일본 아오모리로 해외여행을 다녀올 계획이다. 〈문의 : 011-412-0757〉

환대원동창회

10월 10일 40주년 행사

환경대학원동창회(회장 姜吉夫)는 오는 10월 10일 모교 관악캠퍼스에서 모교와 공동으로 환경대학원 창립 4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880-5669〉

수의과대학동창회

10월 11일 홈커밍데이

수의과대학동창회(회장 鄭英彩)는 오는 10월 11일 모교 관악캠퍼스 수의과대학(85동)에서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880-1230〉

약학대학동창회

10월 12일 홈커밍데이

약학대학동창회(회장 李世榮)는 오는 10월 12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 잔디밭에서 제27회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701-3456〉

금속동창회

10월 12일 홈커밍데이

금속동창회(회장 崔翔五)는 오는 10월 12일 모교 관악캠퍼스 버들골에서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877-2808〉

의과대학동창회

10월 13일 함춘미술전

의과대학동창회(회장 河權益)는 오는 10월 13~23일 모교 연건캠퍼스 함춘회관에서 제6회 함춘미술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740-8183〉

간호대학동창회

10월 14일 홈커밍데이

간호대학동창회(회장 李倫京)는 오는 10월 14일 모교 연건캠퍼스 간호대학 신관에서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740-8843〉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AIP동창회 鄭喜鎔회장
(청석엔지니어링 회장)

최고산업전략과정 (AIP) 동창회를 이끌어갈 제10대 회장에 청석엔지니어링 鄭喜鎔(27기)회장이 선임됐다.

지난 4월 정기총회 때 선출해야 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하다가 7월 22일 임시총회를 열고 회장을 비롯해 집행부 임원까지 구성을 완료했다. 신임 鄭회장은 4년째 용산고동창회장을 맡고 있으며 차기 고려대 공대교우회장 물망에 오르는 등 동창회와 인연이 깊다. 지난 8월 20일 전화인터뷰를 통해 소감과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취임 소감 한 말씀.

“공대 姜泰普학장의 권유로 열렬 곁에 회장직을 수락하기는 했습니다만, 부족한 게 많아 걱정이 앞섭니다. 용산고동창회장도 맡고 있고 회사 일로 해외출장이 잦아서 바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도 주어진 일인만큼 최선을 다해 2천여 회원의 구심점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집행부 구성은.

“임시총회 때 모든 인선을 마쳤습니다. 우리 동창회는 종간사장, 간사 9명, 감사 2명, 골프회장, 산악회장, 로타리클럽 회장으로 집행부가 구성됩니다. 이번 10대 집행부의 종간사장은 趙



顯淳(법학80-84·30기)변호사가 맡아 주셨고 감사에는 夫昌烈(건축77-81·34기)·金榮惠(대학원85졸·26기)동문이 선임됐습니다. 羅卿暖(사법82-86·30기)·鄭熙秀(34기)국회의원도 각각 홍보간사와 섭외간사로 봉사해주기로 하셨습니다. 그 외 洪誠杓(환대원 74-76·10기)로타리클럽 회장, 趙仁衡(13기)산악회장, 朴榮植(28기)골프회장 등

펼치고 있고요. 저 역시 이 사업들을 차질 없이 이어나가는 데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문들에게.

“총회에서 선출되지 않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모임을 열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친목단체는 회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신임 鄭회장은 72년

이 동호회 발전을 위해 수고할 분들입니다.”

－향후 중점적으로 펼칠 사업 계획은.

“벌써 39기가 수료했습니다. 최고위과정 중에서는 오랜 역사와 탄탄한 조직을 갖췄다고 볼 수 있죠. 동창회는 회원들의 친목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매년 1억2천여 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학술세미나, 골프대회, 등산대회, 송년회 등의 행사와 회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울대 발전을 위해 결성된 로타리클럽을 통해 장학금 지원사업 등을

고려대 토목환경공학과를 졸업했으며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부사장, 건설교통부·서울시·한국도로공사 기술심의위원, 한국건설감리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84년 설립한 청석엔지니어링은 토목 분야를 설계·감리하는 종합용역전문회사로 7백여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2003년부터 해외사업에 박차를 가해 중국, 베트남 등 8개국에 진출해 지난해 9백억원 수준의 매출을 올렸다. 2006년 서울사랑 시민상 토목부문 대상, 올해 철탐산업훈장을 받았다. 가족으로 부인과 사이에 미혼인 남매가 있다. 〈南〉

“2천여 회원의 구심점 되겠다”

“어깨 무겁지만 스스로 선택한 길, 자신 있게 소신 펼치겠다”

동문후를 찾아서

金炯昨 국회의원



대담: 본보 李相起논설위원(한겨레신문 선임기자)

포장마차에서 소주잔을 부딪친다. 뮤지컬 ‘넌센스’ 관람을 마치고 관객들과 ‘요즘 문화’를 얘기한다. 金炯昨(외교67-71)국회의장과 함께라면 언제라도 그런 일이 가능할 것 같다. 약간 밟그레한 얼굴에 가벼운 미소를 항상 담고 있는 그는 ‘주류가 아니면 서’도 뛰어난 ‘성실성’으로 대한민국 국회 수장에 올랐다. 그를 8월 29일 오전 11시 30분 국회의원 집무실에서 인터뷰했다. 예정에 없던 식사까지 이어져 오후 1시 30분에 끝났다.

— 이런 곳에 옥잠화가 있는 것은 처음 봅니다. 구례군수가 보냈네요. 옥잠화를 원래 좋아하시나요.

“야생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의장 공관에 외국인도 국회의원들도 많이 오는데, 한국 야생화에 대해 입으로 떠드는 것보다 공관에 심어 놓으면 더 낫지 않겠어요? (金의장은 동아일보 시절 선배로 사진 취재를 위해 동행한 李五峰선배께 “李선배가 야생화 대가죠” 했다.) 농촌진흥청에 특별 의뢰해 심었어요. 매발톱, 구절초, 산마늘 등 수십 가지가 있어요.”

(필자는 2002년 12월 한국기자협회장 시절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국벤처기업상 시상식에서 그를 처음 만났다. 그는 여느 국회의원들과 달리 자신의 시상 차례 뒤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모든 순서가 끝나서야 자리를 뜨는 거였다. 그 후 매년 같은 자리에서 만났는데, 마찬가지로였다.)

— 의장님에 대해 인상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예전 벤처상 시상식 때 끝까지 남아 자리를 지키셨던 것 하고 직접 전화 받으시는 것인데요.

“할 일이 없었지 뭐. 李相起씨니까 받았고.”

(그는 판 의원들과는 다른 게 많다. 국회의장 명패에 새겨진 ‘김형오’란 한글이름 서체도 보통 쓰는 것과 다르다.)

“우리 비서진에서 만들었는데 거의 초선 때부터 사용했어요. 명함도.”

— 이메일은 직접 보십니까.

“요즘은 못해요. 대신 꼬박꼬박 챙기라고 하죠.”

— 핸드폰 문자는요.

“지극히 개인적인 일 외에는 안 보내죠.”

— 국회의장 되시니까 어떠세요. 우선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렇게 물으면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매일매일 생활이 바쁘게 돌아가잖아요. 자기 전에 국회의장으로서 소임을 잘 하고 있는지, 항상 되묻고 자성을 해요. 이 시기에

의장 자리를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거기 억눌려 살아서는 안 되겠다 마음먹고 있어요. 책임감에 눌려 있다 보면 아무 일도 못하고 생각의 여유, 행동의 자유가 없어지죠. 이 자리에 오기까지 행동하고 처신했던 것들을 관철하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처신은 항상 무겁게 하면서 사고는 바르게, 자유롭게. 신선한 공기를 마셔가면서 말이죠.”

— 비서관에게 의장님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무어나고 물었더니 ‘맑은 힘’이라고

골몰만 하면 답이 안 나와요. 밖에서 산책도 하고 그러다 보면 마음도 편해지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생활자체를 즐겨야 됩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 못 사는 거죠. 이것이 나의 운명이고, 생활이다 하다 보면 사심 없이 하는 길이 열리더라고요.”

— 원로 언론계 선배 몇 분에게 의장님에 대해 물었더니 대체로 공통된 게, ‘성실한 기자였다, 그러나 주류는 아니었다.’ 국회 쪽에도 물어봤더니 마찬가지로 답이 나와요.

“국회 운영제 고쳐 상시국회 이룰 것”

공관에 야생화 수십 종 심어 해외 홍보

하더군요. 마음에 드세요.

“내가 지은 것은 아닌데, 상당히 내 자신에게 경종을 울리는, 좀 건방진 이야기지만 참 잘 지었다 싶어요. 추구하는 과정이고, 경구가 되기도 하고...”

— ‘빛날 형, 밝을 오’ 이름자가 전부 한 거네요. 평생 남에게 비추는, 본인은 발광체니까 괴롭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남에게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죠.”

— 오늘 아침 나오면서 무슨 생각 하셨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이 만찬수준 아니까, 오늘 아침 너무나 무 힘들었어요. 공관 뒤에 산책로가 있어요. 제법 높아요. 서너 번 왔다갔다하니까 기운이 들더라고요.”

— 보통 힘들 때는 어떻게 풀어가세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많으시죠.

“정치인들은 하루하루 쉽지 않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기도를 해요. 또 편안하게 생각을 하려고 하고,

주류는 아니었지만 비주류도 아니었다는 애기입니다. 그럼에도 국회의 No.1이 되신 건데 결과적으로 지난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 2월까지만 해도 내 스스로 의장이 되겠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개인적으로 한 달 이상 고민했어요. 마음을 굳히고 출마한 이후 주변에서 왜 국회의장이냐, 끊임없는 반론이 나와요.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라서 주변 사람들과도 회의를 안 했어요. 지금도 의장 된 것에 대해서 어깨가 무겁게 느껴지지만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 자신 있게 내 생각을 펼치려 합니다.”

— 주류가 아닌 것과 비주류인 것은 다르죠.

“저는 주류가 아니었어요. 또 주류가 될 만한 능력도 안 됐고요. 주류가 되기엔 내가 좀 벼락해요. 현재와 현상에 만족하지 못해요. 거기 만족해야 주류가 되는데, 현상유지 세력에 대해 내 스스로 비판적이었고, 도전적이었죠. 그러면서도 세력을 형

성하는 능력이 없어요. 조직을 확대해 나가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 주류가 아니었죠. 비주류도 세력이나 조직이 있어야 돼요. 운이 좋아서 5선까지 뛴죠. 늘 마음을 비우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국회의원을 이렇게 오래 하는데 국회의원 하려고 아등바등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해요. 단 하루를 하더라도 대의와 공의에 입각해야죠. 왓자지껄 요란법석을 떨면서 하는 것은 싫어요. 국회의원치고 자기 쇼하는 것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었습니까만 지나친 노출증에 걸린 사람들은 싫어해요.”

— 그게 진짜 실력 아닌가요.

“내 자량을 하자면, 5공 때 청와대 수석도, 비서관도 아닌 일개 행정관이었지만 상당히 중요한 일을 했어요. 동아일보에서 외교안보연구원으로 갔다가 청와대로 간 거죠.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사표까지 생각했어요. 촌놈이 청와대 근무까지 했으니 여한이 없다, 다만 이 일을 그만두고 나면 어떻게 살아가나 걱정했지만, 안 맞아서 노선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 생각과 같았던 아웃사이더들이 이겼어요. 사표 안 내고 승진까지 했어요. 운대가 좋았던 거죠.

盧泰愚대통령 때 국회에 들어왔는데 어떤 보직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전국구 의원도 상임위 부위원장 등 여러 보직을 맡는데, 단 한 개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盧泰愚대통령시절 정치 분위기가 오래갔으면 나 같은 경우는 탈락 1호였을 텐데, 또 1년이 지나니깐 金泳三大통령 체제가 들어서고 조금씩 활동영역이 생겨났죠. 시운이 맞아 떨어지는 운절기삼이라 할까...”

(그는 “운이 좋아야 되지”하며 크게 웃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은 그의 진수를 보여주는 듯했다.)

“내 자량을 굳이 한다면 ‘비정치적인 것을 정치로 찾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치인’ 하면 싫어하잖아요. 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비판의식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분야가 정보통신, 과학기술 쪽이 있었어요. 당시 모 유력 실세가 ‘너 왜 거기 신장하느냐, 말만 하면 원하는데 아무데나 넣어줄게. 거기는 3류나 가는 곳이야’라고 했어요. 하지만 나는 굳이 1·2·3지망을 거기로 썼어요. 그때는 교체위원회죠. 교체위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100% 교체된다, 재선이 안 된다 그러던 시절이었죠. (웃음)

시대를 보는 시각을 넓히려려고 노력했어요. 정보통신은 정치와 관계가 먼 분야였고 지역에서도 어린이 대상으로 환경에 관한 글짓기, 그림대회를 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표가 되는 거였어요. ‘金炯昨’란 이미지가 ‘저 젊은 사람이 정보통신에 관심 있어, 아이들에게 환경에 관한 그림, 글짓기 시키고...’ 이런 식으로 나를 정치화시켰죠. 그 외에 대체에너지, 풍력발전 포럼 같은 것을 4년 전에 시작했어요.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던 게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 멘토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죠.

“어느 곳에서나 1초의 망설임 없이 말하는데, 姜英勳 前총리입니다. ↗

“국회를 바꾸려고 노력했던 의장으로 기억되면 여한 없어”

☑ 동아일보를 그만두고 찾아간 분이 그분이었어요. 당시 외교안보연구원장이셨어요. 언론환경이 정말 밥맛 없던 유신시절, 내가 있던 신동아는 더더욱 형편없는 의욕상실 상태였죠. 당시 원고 2백매 정도 글을 썼어요. ‘해외 한국학자들의 현주소’라고. 거기에 姜英勳씨에 대한 이야기가 한 줄 있었어요. 만난 적도 없고, 전화통화만 했는데 당시 이야기가 있으니까 신동아를 사보게 된 거죠. 그리고는 金炯昨를 데려오라고 했죠. 총리실에 있을 적에는 이분이 국무총리로 왔어요. 국회로 나간 결정적 계기도 이분이 마련해 주셨고, 정말 묘한 인연이에요.

국회의장 된 날 저녁, 그분을 모시고 식사대접을 했죠. 국가관이 참 바르고 원칙에 강하면서도 겸손하고, 실력을 과시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분과 대화나 토론을 하면 상대자들이 낯시뻐이 되는 거예요. 나를 내세우지 않고 굉장히 도덕적인 인생을 사시고 솔선수범하는 분, 그분 앞에만 가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느낀다고요. 솔선수범하지, 강직하지, 겸손하지, 청빈하지, 외유내강하지, 친절하지, 봉사적이지. 나에게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崔昌潤(사학66졸)박사가 있어요. 참 훌륭한 분이셨어요. 난 처음 청와대에 공보로 갔어요. 스피치라이터 줄병으로요. 동아일보 출신 崔在旭선배 아래였죠. 연설문 초안은 내가 잡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崔昌潤선배가 자기 방에서 일하자고 해요. 그분은 정무였어요. 두 분이 군인 출신 아니다 할 정도로 비군인적이었어요.”

— 국회의장 임기 2년 동안 ‘金炯昨’란 이름을 걸고 내가 이것만은 꼭 하겠다 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기대하는 답변이 안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국회의장을 한 달 고심하고 결심했다고 했잖아요. 한 달 동안 내린 결론은 ‘대한민국 국회를 바꾸려고 노력했던 의장으로 기억되면 더 이상 여한이 없겠다’입니다. 내가 국회의원을 한두 해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바꾸려고 노력했던 사람으로 기억돼도 좋다고 봐요. 2년 임기 중 벌써 석 달이 지났잖아요. 18대 국회의원들이 4월 9일 당선돼서 엄청난 포부, 이념, 이상, 실천의지를 갖고 왔다가 녀 달 동안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는 형국의 아픔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처한 현실이 그러니 내가 생각하는 거창한 국회 개혁보다 바른 길로 가야되는 모습, 선진국회의 모습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하지만 임기 중에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20년을 하라만 못 하겠지만 20개월은 잠시 지나가잖아요. 피곤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자유롭게 하자는 게 내 총론이자 결론이죠.”

—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굳이 더 이야기하자면, 국회 운영제도를 뜯어 고쳐 상시국회를 이루는 겁니다. 국회가 1년 열두 달 열려야 된다는 겁니



넓은 안목으로 비정치적인 것을 정치로

정치길 이끈 姜英勳 前총리 ‘삶의 멘토’

다. 개원협상 한다고 석 달, 녀 달 끄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어요.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면 바로 들어가야 하는데 가장 후진국적 양상을 이변에 보여줬거든요. 국회에 대한 신뢰감, 가치관이 낮기 때문에 내 스스로 엄청난 자괴감을 느꼈어요. 길 거리에 나서는 국회의원들을 얼굴도 못 들도록 여론에서 질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국회가 얼마나 형편없으면 국회의원이 밖에서 그러는 것을 국민들이 오히려 이해하려고 하나, 전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국회를 정말 바르게 제대로 이끌어야겠다, 그걸 총괄적으로 묶어서 ‘정치의 중심은 국회로, 국정 의 중심은 국회로’ 하려는 거죠. 지극히 당연하고 원칙적인 것이죠.”

— 국회의원만 17년째인데, 정치인으로

서 자존감, 자부심을 백점 만점으로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점수 좀 후하게 줄려고. 어쨌든 A학점. A+도 줄 수 있죠. (웃음)”

— 기지를 하다가 정치를 하셨어요. 요즘 그에 대해 논란도 있어요.

“변명 아닌 변명이지 만 기자생활을 3년 채 못했기 때문에 기자출신 정치인이라고 하면 겉으로는 기분이 좋지 않아요. 속으로는 좀 미안하죠. 속으로는 찜찜하다고요. 유신시절에는 기자로서 할 일이 없었어요. 펜대를 쥐고 길거리에서 저항해서 감방에 가든지 그냥 머무르든지. 그 상황에서 다른 돌파구를 찾는 것은 관찮았는데, 지금은 그때와 비교가 안 되죠. 복잡다기해졌잖아요. 한 가지에 대한 정답을 말하기가 어려운 사회가 됐어요. 지금은 기자 하다가 정치권에 들어오는 환경이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시절에는 기자 하다가 정치권에 들어오면 기대치

실력을 키워나가길 바랍니다.”

(집무실에서 마지막 질문으로 연하장을 몇 장이나 쓰냐고 물었다. 그는 “많이 하지는 않는데 직접 사인을 하려고 해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했다. 의원식당으로 옮겨 식사를 하면서 인터뷰를 이어갔다. 金의장은 뒤통찌개를 시켰다.)

— 국회의원들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하러 국회 의원 하는지’ 하는…

“의원 스스로가 표를 의식해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이 지역에 가면 제일 많이 듣는 게 ‘뽕이졌더니 코빼기도 안 보인다’예요. 이 말에 노예가 돼서 주중에라도 틈만 있으면 돌아다니면서 굶질굶질 한다고요. 그렇게 경조사 쫓아다니면서 언제 국정을 봅니까. 시민단체들은 주중에 국회가 열렸는데 지역구 내려오면 그런 걸 고발해야죠.”

— 국회의원들의 상대 당이나 정부를 비방하는 일부 발언이 국민들 정신건강에 엄청 안 좋아요. 그래서인데, 그런 격한 단어가 나오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도록 하면 어떨까요. 발언하면서 유머도 좀 있고요. 품위를 높여야 하지 않겠어요.

“그거 아이디어네. 국회에서 무슨 말을 시작할 때 ‘존경하는’으로 시작하는 게 영국에서 비롯됐어요. 이야기할 때는 사람 이름 먼저 부르지 않고 ‘존경하는 스코틀랜드 무슨 지역의 아무개 위원님’ 이렇게 함으로써 화난 게 좀 사그러들기도 하고요. 물론 실제로는 존경은 안 하더라도….”

(그는 인터뷰 말미 서울대동창회보가 10만부 발행된다는 말에 “우와 무지하게 많이 나가네요”라며 “예전에 보면 사진이 고리타분했는데, 많이 바뀐 것 같네요. 기대할게요”라고 말했다.)

• 金炯昨의장은

金炯昨의장의 비서진 명함 뒷면엔 ‘시대를 보는 큰 눈 맑은 힘 김형오’라고 새겨져 있다. 청렴, 성실, 사고방식의 유연성 등 金의장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인 듯 하다. 야생화를 무척 좋아해 국회의장 공관에 수십 종 심었다고 자랑한다.

경남 중·고교와 모교 외교학과를 졸업한 金의장은 1992년 국회의원(부산 영도)에 처음 당선된 후 18대까지 5선째다. 동아일보 기자(75~78년)와 외교안보연구원 연구관(78~82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82~86년), 대통령·국무총리 정무비서관(86~90년)을 거쳤다. 국회에선 교통체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위원회 등 비인기 상임위를 일부러 골라 한 우물을 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01~03년), 디지털한나라당 추진위원장(03년) 등을 역임했다. 한나라당 사무총장(04~05년)과 원내대표(06~07년)를 잘 수행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선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사진=李五峰논설위원·정리=金南柱기자>

화제의 동문

書畫刻 작가 黃大錫동문

서울을 떠나 젊은 시절 접었던 조각가의 꿈을 되살리며 목각 공예에 전념하고 있는 공대 건축학과 58학번 黃大錫동문을 만나러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산골에 사는 그를 찾아갔다.

黃동문은 1996년 강원도 영월로 낙향을 해 치악산 기슭에서 야생화를 키우고 나무판에 마음을 새기면서 산다.

3년 전부터 영월에 사는 이름난 목공예가 박장배 씨로부터 배운 書畫刻 솜씨는 타고난 예술적인 감각과 손재주 때문인지 10년을 배운 어느 篆刻 예술가보다 낫다는 평을 받는다. 그는 70을 넘긴 나이에 서화각 공예가로 다시 태어났다.

黃동문은 요즈음 틈만 나면 집 뒤에 딸린 공방에서 나무 향을 맡으며 나무결을 따라 칼을 놀린다. 칼끝에서 십장생이 그려지고 만고의 진리를 담은 서예가들의 작품들이 크고 작은 돌배나무, 산벚나무, 느티나무 판에 음양각으로, 어떤 때는 평각으로 다시 태어난다.

姜燦均 명예교수가 디자인한

관악캠퍼스 정문 철골 만들어

詩·書·畫를 먼저 알고 나서 각을 알아야 서화각을 할 수 있다. 서화각은 평면 예술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조각에 가까운 입체 예술일 수도 있다. 서예가들이 붓으로 전해주는 시의 감흥을 공예의 한 부문인 전각 예술가들은 칼끝으로 나무나 돌, 유리, 상아 등에 새겨 넣는다. 글씨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림도 파낸다.

그가 손가락 마디가 아프도록 칼끝에 기를 모아 파고 다듬은 작품들은 매년 봄 영월 단종문화제나 제천의 옥소예술제 때 서화각 동호인 모임인 刻心會 회원들과 같이 회원전에서 선을 보여왔다. 현재 그는 제천, 영월에서 서화각을 하

는 향토 예술가이지만 “계기가 마련되면 언젠가 개인전을 할 날이 올 테지 뭐...”라고 말한 것처럼,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머지않아 서울 한복판에서 그의 서화각 개인전이 열릴 날이 곧 오리라.

영월 동강 강변에는 천연기념물인 동강 할미꽃이 서식한다. 黃동문은 영월자연식물연구회를 만들어 회원들과 동강 할미꽃 씨를 받아 이를 발아시켜 자생군락지 복원사업도 벌이고 있다.

영월자연식물연구회장과 각심회 회장을 맡고 있는 黃동문은 대우건설 아프리카 현지 사장과 삼익건설 부사장을 끝으로 현업에서 물러났다.

현재 그는 12년째 손수 지은 산중의 통나무집 自閑齋에 살고 있다. 서울서 2시간 거리인 치악산 기슭에 있는 그의 집과 공방을 자주 찾는 이들이 많다.



黃大錫동문이 서화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秋史 金正禧(1786~1856)선생의 세한도(歲寒圖)

움이 되는 작품들을 만들 수 있게 공방을 차렸으면 하는데, 개인 힘으로는 힘들 것 같아. 이런 사업은 아마도 지자체가 앞장서 해야 할 사업일지도 몰라.”

강원도 영월 산골서 ‘悠悠自適’

“장애인들에게 서화각 전수 꿈”

오랜 친구인 安東壹(법학59-63 홍익법무법인 변호사)·李載厚(법학58-62 김&장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동문과 鮮于仲皓(토목공학59-63 광주과학기술원장)·李鍾憲(경제59-65 덕인양행 사장)·安聖哲(행정58-63 유니온테크 회장)동문 등이 자주 서화각 공방과 그가 전국을 다니며 채집해 키우고 있는 야생화 꽃밭을 둘러보고, 색다른 삶을 사는 그를 격려하며 이곳에서 잠시 쉬어 간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은퇴 후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제2의 고향인 영월과 제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역 유지들과 자주 만나 교분을 두텁게 쌓으며 이야기를 나눈다.

“내가 배우고 닦은 서화각의 운도법을 이 고장 장애인들에게 가르쳐 생업에 도

黃동문은 모교와 남다른 인연을 많이 맺고 있다. 모교가 관악캠퍼스로 이전하고 나서 디자인학부 姜燦均(응용미술57-63)명예교수가 정문을 디자인하고 제작했다. 이때 세워진 철골 정문은 1971년부터 1978년까지 黃동문이 직접 설계 운영했던 철골제작 전문업체였던 ‘鋼構社’에서 만들어 세운 작품이다.

치악산 기슭서 야생화 키우며 鋼구조학회·색채학회 활동도

黃동문은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이들 모두 아버지가 세운, 화염병에도 끄덕 없는 鐵구조물로 만들어진 서울대 정문을 드나들었다. 미대 조소과를 졸업한 장남 黃周善(조소89-93 KAIST

문화기술대학원 박사과정)동문과 아버지의 대를 이어 공대 건축학과를 졸업한 黃周明(건축91-95 대우건설 과장)동문은 아버지가 설치한 서울대 철 대문을 지나다녔다. 그때마다 이들은 늘 건축가 아버지를 떠올리곤 했다고 한다.

1978년 3월에 세워진 서울대 정문은 우리나라에서 리베이트 공법으로 만들어 세운 최후의 철구조물이다. 보통 철구조물은 하이텐션 볼트 공법이나 용접 공법으로 제작되는데 서울대 정문은 리베이트 공법으로 제작해 세웠다. 당시 정문 공사를 할 때도 리베이트 공법 기술자들이 일선에서 다 떠난 후여서 멀리 전남 완도까지 가서 옛날에 같이 일했던 기술자들을 데려와 공사를 했다고 한다. 黃동문은 1993년 대전엑스포 정부관 건립을 한 공로로 동탑 산업훈장을 받기도 했다.

야생화 키우라, 작품에 매달리라 한시도 쉴 틈이 없는 시골생활에서도 黃동문은 한국鋼구조학회와 색채학회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가 졸업한 경기고 54회 동기생들로서 모교 공대를 졸업한 ‘540會’ 모임이 있는 날이면 친구들을 만나러 영월 주천골을 떠나 모처럼 서울 나들이를 한다.

(본보 李五峰논설위원·아주대 겸임교수)

서울대 가족

金明係 KBS 첫 여성 음악PD

남편·장남·사위·시숙·조카 등 20여 명이 동문

“노래 봉사하며 日新又日新 삶 살아요”

음악이 흐른다. 이어 KBS 초대 여성 음악PD를 지낸 金明係(성악51-55)동문은 피아노 반주에 맞춰 표정이 굳은 환자들에게 노래로 인사한다. 처음엔 입을 꼭 다물고 있던 환자들도 金동문이 “따라하실래요?”하며 분위기를 유도하자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한다. 한 시간 뒤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응어리들이 풀리고 얼굴엔 화색이 돈다.

“지난 1955년 우리나라 최초 신경정신과 의원을 개원해 국내 정신의학과 군정신과를 개척한 남편 俞碩鎭(경성의학44졸 前베드로정신과의원장)박사가 개발한 음악요법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성악을 하니 음악으로 봉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같이 했죠. 국내외 학회를 개최할 때도, 지역봉사회 모임을 만들 때도 저에게 이러한 중책을 맡겼어요. 俞박사께서 정신의학계의 태두로 불리우는 것도 이러한 음악·미술·댄스·사이코드라마 요법을 통해 환자들이 정서적으로 회복되고 온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인적적 진료를 했기 때문이죠.”

무공훈장을 받은 俞碩鎭동문은 지난 6월 88세에 숙환으로 별세해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俞동문은 국내 정신의학·로타리클럽·가톨릭 선교와 문화·예술 발전 등에 공헌했으며, 여든의 나이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자. 늘 배우는 자세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개척정신을 지녀야 한다”는 철학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사회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덕업을 ‘日新又日新’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

30년간 서울대총동창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金明係동문 역시 한국성악회 부회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영화방송부 위원장, 한국여학사협회 문화교류부장, 방송인동호회 창립이사 등을 역임하는 등 방송 및 여



두 번째줄 우로부터 金明係·俞碩鎭·李棕性동문, 셋째줄 우로부터 두 번째 俞泰赫동문

성분야에 헌신했다.

俞碩鎭·金明係동문 부부가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활약했듯이 가족 중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울대인이 20여 명에 이른다.

장남 俞泰赫(심리학66-71 베드로신경정신과의원장)동문과 만사위 李棕性(의학64졸 前뉴욕주립대 임상교수)동문을 포함해 차녀·3남·막내사위·외손자 등 7명이 정신과 전문의로 활약하고 있다. 둘째사위와 셋째사위(마취과 전문의) 그리고 외손녀(이비인후과 전문의)까지 합치면 가족 중 의사가 10명에 이른다.

7남매 중 4남인 남편 俞碩鎭동문의 가족 중에는 만형 故 俞興鎭(경성의전29졸 前산부인과학회장)동문의 장남·만사위·차녀·차남·셋째 사위가 서울대 가족을 이룬다. 또 俞碩鎭동문의 둘째 형의 아들 둘과 셋째 형 故 俞南鎭(농학37졸)동문의 아들 셋, 큰며느리, 둘째 사위가 모교를 졸업했다.

특히 俞南鎭동문의 손녀가 아나운서 출신인 俞靜雅(사회85-89)동문으로, 최근 클래식 에세이 ‘마주침’을 펴내 베스트셀러에 오를 정도로 인기다. 俞碩鎭동문 누나의 아들 2명과 남동생 故 俞億鎭(불문48-56)동문, 그리고 매제 白燦玉(경제48-55)동문과 그의 장남·장녀가 모두 모교 출신이다.

金明係동문은 俞碩鎭동문과의 추억을 회고하면서 “1957년 남편이 ‘프로이트 탄생 101주년 기념 강연회’를 열어 프로이트이론을 소개해 국내 정신의학계 발전에 신호탄 역할을 했어요. 그 무렵 어린이들의 정신건강 및 복지에도 관심이 많아 아동상담소도 운영했는데, 俞박사의 소원이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로 활동하고 있는 자녀들을 모아 종합클리닉센터를 세우는 것이었죠. 비록 그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제 세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자녀와 손자들이 그 뜻을 이어받아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金明係(성악51-55)동문 가족

남 편

故 俞碩鎭(경성의학44졸)

장 남

俞泰赫(심리학66-71)

만사위

李棕性(의학64졸)

시 숙

故 俞興鎭(경성의전29졸)

故 俞南鎭(농학37졸)

故 俞億鎭(불문48-56)

또 俞碩鎭동문은 한국임상예술학회 창립 회장으로 예술분야에 대한 조예가 깊었다고 한다. 특히 그는 폐관위기에 놓인 소극장을 부활시켜 당시 큰 화제가 됐었다고.

“1975년 재정문제로 난관에 봉착한 소극장에 거금을 출연해 ‘삼일로창고극장’이라는 새 이름으로 재개관을 했습니다. 개관 2주년 때는 번역물 ‘마음의 심층’을 공연하기도 했고요. 이게 소문이 나면서 다른 소극장들에게 활력소가 됐고, 관객이 늘면서 그 명맥이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죠.”

俞碩鎭동문이 정신의학계 다음으로 열정을 바쳤던 곳이 로타리클럽 활동이다. 국제로타리 3650지구 총재를 역임한 그는 30년간 한번도 빠짐없이 로타리클럽 모임에 참석해 출석상을 받을 정도로 지역봉사활동에 헌신적이었다. 모교에 대한 사랑도 남달랐던 俞동문은 지난 2002년 모교 의학박물관에 50~60년대 발간된 정신의학서적과 학회 강행록 등 초창기 국내 정신의학계를 엿볼 수 있는 사료 2만권을 기증하기도 했다.

金明係동문은 “俞박사께서 남을 배려하고 가족들을 위해 헌신한 자상한 남편이자 아버지로 영원히 남을 것”이라며 “저 역시 마지막까지 모교와 사회를 위해 일조할 수 있는 동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9월엔 흠뻑 젖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떡도 빚고, 옷놀이도 하며, 3대가 어울리는 추석 명절이 있다. 俞碩鎭동문의 유지를 받들어 생전에 강조했던 ‘우리가족 하나되어’를 오래도록 실천하는 서울대 가족으로 남기를 기대해 본다. (表)

해외 석학 등 외국인 교수 22명 채용

세계 초일류 대학 도약 위한 첫발

모교 소식

모교(총장 李長茂)는 세계 Top 10 초일류 대학 도약의 일환으로 해외 석학을 포함해 외국인 교수 22명을 이번 9월부터 신규 임용하기로 확정했다.

李長茂총장은 취임 이후 ‘Global SNU’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20여 명의 노벨상 수상자급 석학 등 1백여 명의 외국인 교수 채용을 추진해왔다. 모교는 최근 전임교원뿐만 아니라 해외 석학을 초빙하는 데 적극 나서 초빙교수를 포함해 현재 76명의 외국인 교수가 재직하고 있다.

사회학과 앤서니 우드워스 교수를 비롯해 고고미술사학과 안드레아 피어슨 교수, 철학과 마크 시

더리츠 교수, 사회복지학과 피터 애브라함슨 교수, 산업공학과 알마스 헤쉬마티 교수, 전기·컴퓨터공학부 니킴 팰 교수, 국제대학원 케네스 모리스 웰스 교수 등 7명은 정교수로 부임하게 된다.

이미 모교는 수학계의 노벨상에 해당하는 ‘필즈 메달’ 수상자인 일본의 히로나가 헤이스케 교수를 올해 3월부터 수리과학부 석좌교수로 초빙한 바 있으며, 1995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파울 크루첸 박사도 지구환경과학부 석좌교수로 부임할 예정이다.

모교는 이번 외국인 교수의 대거

채용이 교육 및 연구의 국제화, 국내 교수들의 연구역량 강화에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외국인 교수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이들도 국내 교수들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 과정을 거치게 할 예정이다.

임용교수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인문대 : 안드레아 피어슨(고고미술사학), 마크 시더리츠(철학), 마리아 로드리게스(서어서문학), 썸 베르메르스(종교학), 올리비아 밀번(중어중문학) ▲사회대 : 앤서니 우드워스(사회학),

피터 애브라함슨(사회복지학), 크리스티엔 애스펠터(사회복지학) ▲자연대 : 우르스 프라우엔펠더(수리과학), 제랄드 트루트나우(수리과학), 우베 피셔(물리·천문학) ▲경영대 : 테레사 조(경영학) ▲공대 : 알마스 헤쉬마티(산업공학), 존 알트만(산업공학), 니킴 팰(전기·컴퓨터공학), 심광몽(전기·컴퓨터공학) ▲사대 : 린 일론(교육학), 로버트 파우저(국어교육), 더글라스 그레스(지리교육) ▲음대 : 힐러리 핀점성(국악) ▲행정대학원 : 사운 골드핀치 ▲국제대학원 : 케네스 모리스 웰스

“정든 캠퍼스여 안녕!”

2천4백53명에 후기 학위수여

2007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지난 8월 25~29일 각 단과대학(원)별로 열렸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학사 1천31명, 석사 9백56명, 박사 4백66명 등 총 2천4백53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중 외국인 졸업생은 학사 15명, 석사 83명, 박사 12명 등 총 1백10명이다.

또 8월 27일 열린 인문대 학위수여식에서 서양사학과에 1984년 입학해 1986년 미등록 제적됐던故 최우혁 씨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했다.

지난 2월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학사 3천1백87명, 석사 1천5백37명, 박사 5백49명, 등 총 5천2백73명이 학위를 받아 2007학년도 학위수여자는 총7천7백26명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동창회 총 회원 수는 33만91명(준회원, 특별과정 포함)으로 늘어났다. 각 단과대학(원)별 졸업자 수와 동창회 회원 수는 표와 같다.

단과대학(원)별 회원현황

구 분	8월 졸업	총회원
인 문 대 학	103	10,522
사 회 과 학 대 학	155	13,733
자 연 과 학 대 학	87	10,357
간 호 대 학	4	3,354
경 영 대 학	43	6,526
공 과 대 학	275	41,384
농 업 생 명 대 학	82	20,305
문 리 과 대 학	—	9,731
미 술 대 학	34	5,064
법 과 대 학	60	15,833
사 범 대 학	109	25,309
상 과 대 학	—	6,723
생 활 과 학 대 학	31	3,912
수 의 과 대 학	—	2,167
약 학 대 학	2	6,037
음 악 대 학	44	7,278
의 과 대 학	1	11,023
치 과 대 학	1	6,035
대 학 원	1,210	82,951
경영전문대학원	49	101
경 영 대 학 원	—	701
교 육 대 학 원	—	653
국 제 대 학 원	31	378
보 건 대 학 원	48	3,154
사 법 대 학 원	—	508
신 문 대 학 원	—	264
행 정 대 학 원	33	4,245
환 경 대 학 원	51	2,391
소 계	2,453	300,639
준 회 원	—	13,338
(특 별 과 정)	482	16,114
총 계	2,935	330,091



지난 8월 28일 열린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

선배님,아세요?

다양한 상징물 ㉞

자하연 詩文표지석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 앞 자하연의 詩文표지석에는 조선 후기 문필가인 紫霞 申緯(1769~1847) 선생의 대나무 그림과 사대부의 정신을 담은 한시가 새겨있다.

본래 관악캠퍼스는 경기도 시흥군 자하동이였다. 이곳에서 자란 申緯선생은 秋史 金正喜와 더불어 19세기 조선의 명필로 이름을 날렸고 조선시대 3대 목축화가로 꼽힌다.

표지석 제작은 미대 조소과 李容德교수와 조형연구소가 맡았다.

아시아 첫 ‘세계철학대회’

동양철학, 세계무대 등단

‘철학계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제22차 세계철학대회(WCP)가 지난 7월 30일~8월 5일까지 모교 관악캠퍼스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의 가장 큰 의의는 1900년 파리에서 열린 창립대회 이후 1백8년 만에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개최됐다는 점이다.

한국조직위원회 李明賢(철학60

-64 모교 철학과 명예교수)위원장은 “동양철학이 세계 철학 무대에 정식으로 등단하는 계기”라며 “아시아 철학의 선두 주자인 일본에 앞서 대회를 개최하는 점, 세계화 이후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아 한국에서 대회가 열리는 점 등 여러모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또 “개최지로서 이점을 살려 退溪 李滉과 茶山 丁若鏞 등 우리 사상을 중심으로 한국 전통 철학을 논의하는 특별분과가 편성된 것이 큰 성과”라고 말했다.

李廷鎬교수 등 18명 정년

“노고에 감사합니다”

지난 8월 29일 관악캠퍼스 문화관에서 李長茂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와 재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수 18명의 정년식이 열렸다.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정진하고 정년을 맞은 교수 명단은 다음과 같다.

李廷鎬(영문학)교수, 崔柄憲(국사학)교수, 金信行(경제학)교수, 張浩完(지구환경과학)교수, 南相午(경영학)교수, 盧承卓(기계항공공학)교수, 韓東哲(기계항공공학)교수, 張弼翊(건설환경공학)교수, 姜昌淳(원자핵공학)교수, 金大幸(국어교육)교수, 姜信福(체육교육)교수, 金鍾國(제약학)교수, 金明石(의학)교수, 趙漢翊(의학)교수, 李正典(환경계획학)교수, 金昌會(치의학)교수, 廉廣元(치의학)교수, 韓秀夫(치의학)교수. 한편 이날 河龍出(외교학)교수가 명예퇴직, 崔道成(경영학)교수가 의원면직했다.

(다음 호에 프로필 게재)

첫 학술연구상…10월 시상

우수 교수에 상금 2천만원

모교는 최근 학술연구상(The SNU Research Award)을 제정해 5년 이상 근무한 전임교수(기금교수 포함) 중 자신의 학문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낸 교수에게 시상하기로 했다.

각 대학이나 대학원의 교수 10명 이상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교수들 중 두 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5명 이내의 ‘우수교수’를 선정할 예정이다.

교수들의 단행본이나 연구 논문 실적, 특허·기술이전 실적 등이 심사 대상이 되며 최근 업적이 중점적으로 평가된다.

선정된 교수에게는 각각 2천만원의 상금을 수여하며 11월에 개최될 ‘서울대 학술연구상 특강’에서 강연하는 기회도 주어진다. 시상식은 10월 15일 개교기념일을 전후로 열릴 예정이다. 〈榮〉

세계로 도약하는 서울대 !

감사와 후원의 밤 개최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이사장 李長茂)은 모교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새로운 도약을 약속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감동과 즐거움을 함께 제공하는 행사에 서울대 가족을 초대합니다. 이 행사는 2025년에 모교가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모금캠페인 VISION 2025에 선도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보다 많은 분들이 모교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하기 위한 취지로 준비했습니다.

*본 행사는 지정좌석이므로 반드시 전화 사전예약이 필요합니다.

▲일 시 : 2008년 10월 14일 (화) 오후 6시 30분

▲장 소 : 서울 신라호텔 2층 다이내스티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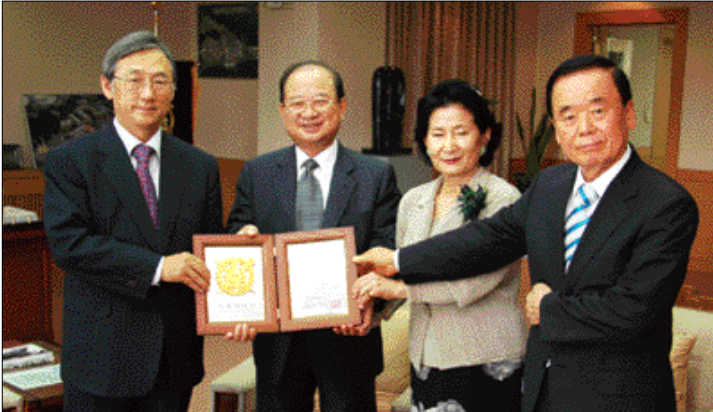
▲문의 : 02)871-1620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이사장 李 長 茂

서울대-미래국제재단, '새싹 멘토링' 장학사업 추진

李長茂총장 “학생들 사회봉사활동에 학교 차원의 적극적 지원 필요”

金鮮東이사장 “빈곤 대물림 막기 위한 사업으로, 35억여원 지원할 것”



모교 李長茂총장, 미래국제재단 金鮮東이사장과 부인(손현경 여사), 宋錫勳감사

모교(총장 李長茂)는 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학교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미래국제재단(이사장 金鮮東)과 손잡고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가기 위한 '새싹 멘토링' 장학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에 봉사하는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대학의 역할이라는 생각에 李長茂총장과 金鮮東(화학공학59-63)이사장은 의견을 같이 하고, 봉사활동을 펼치는 장학생을 아낌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래국제재단은 연간 약 7억원을 향후 5년간, 총 35억여 원을 모교에 지원한다.

미래국제재단은 정유업계 최장수 최고경영자(CEO)인 金鮮東 前 S-OIL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이후 '빈곤의 대물림을 막아 보자'는 의미에서 올해 초 설립한 장학재단으로, 재단 설립취지에 따라 대학생의 봉사활동을 통한 장학사업을 추진해 나간다.

모교와 미래국제재단이 공동 추진하는 이번 '새싹 멘토링' 장학사업은 단순히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훌륭하게 성장한 선배들이 부모의 가난 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중·고생들의 멘토가 되어 학업을 비롯한 총체적인 학습지도를 담당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모범이 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다.

멘토를 희망하는 대학생들은 스스로 봉사활동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멘티(멘토에게서 상담이나 조언을 받는 사람)가 될 생활형편이 어려운 중·고생을 선발하는 과정에도 직접 참여한다. 멘토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은 중·고생 5명의 학습도우미가 돼 봉사활동을 펼치고, 대학생 한 명당 연간 8백만원~1천만원 정도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미래국제재단은 당초 10명의 장학생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신청한 학생만 70명이 넘어 2차례의 면담, 설문조사, 활동계획서 등의 과정을 통해 최종 70명의 장학생을 선발했다. 장학생의 수가 예상보다 많이 증가함에 따라, 재단은 장학사업 예산 또한 대폭 늘려 총 35억여 원을 지원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현재 장학생으로 선발된 70명의

서울대생들은 직접 선정한 중·고등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멘티가 될 학생들을 학교측과 함께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金鮮東이사장은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직접 만나 얘기를 나눠보니 열정으로 가득 찬 학생들의 끈은 마음과 세상을 보는 따뜻한 눈길을 느낄 수 있었다”며 “구체적인 멘토링 계획부터 멘티가 될 중·고생 선정까지 모든 절차를 직접 경험하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 가난으로 소외된 계층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자신만의 꿈을 갖고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金이사장은 “서울대를 시작으로 앞으로 새싹 멘토링 장학사업을 다른 국·공립 대학에도 순차적으로 추진,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모교 李長茂총장은 “이번 미래국제재단의 새싹 멘토링 장학금 기부를 통해 우리 학생들은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법을 배우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어린 학생들은 고난을 이겨내고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용기를 얻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재)서울대발전기금 南益鉉(경영81-85 모교 경영학과 교수)상임이사는 “서울대가 시작한 기금모금 캠페인이 점차 외부로 알려지면서 적극 동참하는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며 “이는 대학이 다양한 인재를 발굴해 국가의 동량으로 키우기 위해 최전방에서 역할을 담당하는 곳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대한 활발한 투자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모교 발전기금 제공)

재학생의 소리

“세계 누비며 ‘독도는 우리땅’ 외쳐요”



金榮彬

(경제02입)

독도라이더 동아리 대표

모터사이클로 세계를 횡단하겠다고 말했을 때 누구도 성공할 거라고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각국의 세관을 설득하면서, 사막을 건너면서, 테러리스트들 때문에 막힌 국경을 지나면서, 히말라야 산맥을 넘으면서, 어느새 저는 조금 변했습니다.

이제까지의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를 만나면 ‘이 사람에게 내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신기한 것은 이것이 의지의 변화가 아닌 습관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가장 민족적인 주제로 전 세계의 청년들과 호흡하면서 역설적이게도 저는 한·중·일이 하나되는 아시아공동체를 꿈꾸게 됐습니다. 제국주의 메커니즘이 동북아를 지배하고 있는 지금, 자본주의 하에서 일어나는 산업의 경쟁과 충돌을 막을 수 없는 이상 저는 평화의 항구적 유지를 위한 통합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부터 Asian Union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중국 대륙을 사이드카로 달리며, 북경대와 칭화대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현행 및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작년 겨울에는 후배들이 중심이 되어 일본을 자전거로 일주하며 동경대의 학생들과 함께 Asian Union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논의했습니다. 8월 18~22일에는 세 번째 프로젝트로 모교에서 중국과 일본의 대학생들

을 초청해 국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를 통해 동북아공동체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담은 책을 출판하고 앞으로 삼국의 모 의정부를 아시아 학생들과 함께 구성하고자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프랑스의 한 청년이 유럽공동체를 이야기했을 때 모두가 정신나간 소리라고 비웃었습니다. EU의 아버지라 불리는 청년 ‘장 모네’의 꿈이 50년이 지난 지금 현실이 됐듯이 선배님들의 관심과 도움이 함께 한다면 저희들의 꿈도 분명 이뤄질 것이라 믿습니다.

***독도라이더 :** 모터사이클을 타고 세계를 다니며 독도는 우리나라의 땅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동아리이다. 지난 2006년 3월 2일부터 10월 19일까지 2백33일 동안 전 세계 21개국, 3만4천 km를 횡단했으며 UCLA, 북경대, 칭화대 등 세계 명문대학의 세미나, 각지 언론과의 인터뷰, 사물놀이 공연, 서명활동, 길거리 홍보 등을 통해 전 세계인들로부터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지지를 받아냈다.

“관악을 보고, 듣고, 맛보세요”

문화 향기 가득한 캠퍼스 투어

서울대발전기금은 선후배간 만남을 주선하고 학내 다양한 문화시설 및 전시를 관람하는 캠퍼스 투어를 개최하오니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기 간 : 2008년 9월 초~10월 (사전 조율 가능)
- ◆신청·접수 : (재)서울대발전기금 캠퍼스 투어 담당자
 - Tel : 02)871-1620, 02)871-1222 / Fax : 02)872-4149
 - 홈페이지 : <http://www.snu.or.kr> / E-mail : snuf@snu.ac.kr
- ◆참가비 : 없음. 당일 참가자 전원에게 소정의 기념품 제공
- ◆모집단위 : 20명 내외
 - 단과대·특별과정·학과별 사전 신청에 따라 졸업기수 형태로 진행 예정
 - 기수 당 20명 내외
- ◆내 용
 - 학내 문화시설 및 전시 관람 및 교내 인사·후배와의 만남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미술관, 박물관, 중앙도서관, 관악수목원)
 - 기타 학내 체험 등 (홈커밍데이와 같은 단과대학(원) 및 학과 자체 행사에 편성·활용 가능함)
- * 학내 투어 기관은 단과대와 학과의 요청에 따라 맞춤으로 진행합니다.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이사장 李長茂

張楠基 명예교수 장학기금 출연

사범대 학생들 위해 1억 쾌척

지난 8월 1일 모교 사범대학 생물교육과 張楠基(생물교육56-60) 명예교수(사진)가 사범대학 교육연구재단에 장학기금 1억원을 출연했다.

張楠基명예교수는 “가정환경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하기 힘든 모교 학생들, 특히 생물교육과 학생들을 위해 지난 2002년 2월 정년 퇴임 후부터 꾸준히 저축을 해왔

다”며 “6년간 아끼고 절약해서 저축한 기금이 계획한 1억원이 다 돼서 출연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대 金姬伯(생물교육75-79) 교무부학장은 “퇴직 후에도 꾸준히 학생들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교수님의 마음이 감동적”이라며 “귀하신 뜻을 받들어 생물교육과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張楠基명예교수는 69년 모교 전임강사로 부임해 생태학·생물교육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으며 한국생물교육학회 회장, 한국생태학회 회장, 한국과학교육학회 회장, 한국생물학회 회장 등을 지낸 바 있다.

콩트 릴레이

40년 후

梁 永 洙

(종교65-69·영문67-72)

제주대 영어교육과 교수



20대 청춘의 그 팔팔하던 모습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둘러보는 얼굴마다 40년 세월의 풍화작용이 역력하다. 신 화백은 벌써 오늘 산행에 나온 것이 후회스러워진다. 버스에 탄 스무 명 가까운 일행 중에서 자신의 얼굴을 알아본 사람은 절반도 안 되는 것 같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는 서울대 출신들치고는 이 정도의 인원이나마 매달 모여진다는 것이 대견한 일이라 했다. 같은 학년 단과대 동창들 중에서 비교적 팔자 좋은 축들이 모여 낙산클럽이라는 것을 만든 것이 10년 전인데, 매년 네 차례 정기모임을 갖는데다 월례행사로 전국의 명산을 순례하고 있으며 해마다 늦가을에는 해외여행까지 가고 있다는 것이다.

신 화백은 이 클럽 모임에 나올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때마침 인사동

들었지만 박혜인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실마리는 될 것 같았다.

대학시절에 박혜인의 동정을 숨어 살피던 그는 그녀의 남다른 미술취미까지 탐지했었던 것이다. 그녀를 멀리서 훑쳐보고 엉거주춤 땀땀하다가 어설픈 끝장낸 쓸쓸한 추억의 4년이였다. 메아리 없는 러브레터 일곱 번의 행적은 그 쓸쓸찜찜한 추억들의 결정판이었다. 그 어설픈 러브레터 전력만 없었어도 감연히 대학동창 주불 대사를 찾아보고 파리 화랑가 방문을 결행했을 것이라는 것이 신 화백의 생각이다.

신 화백은 까리까리 히히덕거리는 동료들과 곁들고 있는 자신이 영 거북스럽다. 그런 가운데 소설가 동장을 한 사람 알게 된 것은 반가운 일이었다. 일행이 30인승 대절 버스에 올라타려 할 때 한 친구가 다가와서

이들의 산행 일정은 갑작스러운 우천 날씨로 인해 용문산 코스에서부터 청평호상의 남이섬 코스로 바뀌었다. 원래는 어린이 놀이터 정도로 알려졌던 남이섬이지만 근래에 다양한 실내 오락시설이나 공연장과 전시장들이 갖추어져 있는데다가 비올 때 산책할 수 있는 경관 좋은 숲길도 많이 있다는 인솔자의 설명을 듣고는 이에 대한 반대자가 나오지 않았다.

비내리는 가운데 도착한 남이섬에는 그런대로 구경할 곳이 많았다. 점심 식사 후 들른 현대미술 전시장도 찬찬히 둘러볼 만하다는 것이 신 화백의 생각이었으나 대부분 회원들의 취향은 이와 달랐다. 누군가의 입에서 남이섬의 노래방 수준이 국가대표급이라는 말이 나오자 즉석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스무 명 가까운 일행이 우루루 몰려간 노래방은 서울 유흥가의 고급 단란주점 못지않게 화려한 곳이었다.

노래에 굶주렸던 사람들처럼 자진해 열창을 불러제끼 세 사람의 뒤를 이어 박혜인이가 성큼 일어서서 마이크를 잡는다. 좌중의 박수가 끝나자 그녀는 걸걸한 인사말부터 시작한다. 금년 가을 낙산클럽 해외여행지인 프랑스에 가면 자기가 직접 여행 가이드를 할 계획으로 있으니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기 바란다는 선언에 또 한번 열띤 박수가 나온다.

이어서 박혜인의 입에서 에디트 피아프의 상송 ‘임 아 라무르’가 흘러나오자 모두들 숨을 죽이는 듯하다. 펄림이 풍부한 목소리

이 있다는 겁니다. 옛날 우리는 엘리트대학 분수대 앞 정의의 여신상을 우러러 보면서 정의사회 구현의 꿈을 불태웠습니다. 여러 부운, 무릇 정의란 무엇입니까. 저는요 정의사회란 인간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세상이라고 봅니다. 무엇을 받았으면 주는 것이 있어야 되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에에또, 아무도 모르는 옛날 일을 고백하러니까 제가 정말 목이 다 막히는 것 같습니다. 제가요, 꿈꿨던 우리 대학시절에 여기 앉아있는 박혜인 여사에게 러브레터를 무려 열다섯 번이나 보냈지만 답장은 단 한 번도 못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엄숙한 정의구현의 이름으로 저의 억울한 청춘에 응분의 보상을 호소하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아유가 터져나온다. 민사소송 시효가 벌써 지났다, 아들 손자 줄줄이 딸린 과부를 데려갈테냐, 소설 쓰려거든 집에 가서 써라 등등. 소설가의 연설이 다시 시작된다.

“여러부운, 진정하시라니깐요. 제가 아무리 소설가이지만 현실을 무시한 상상 공상 망상을 논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대학시절 공부벌레가 뭘으로써 판·검사되고 장관되고 하는 보상을 받았지만, 연애 편지 써보내는 데 바친 저의 청춘에 대해 제가 요구하는 보상은요 아주 작고 간단한 것입니다. 두 달 후에 가게 될 낙산클럽 해외여행 중에 프랑스행 항공기 좌석 배정에서 박혜인 여사의 옆자리를 저에게 배려해달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아유가 쏟아진다. 러브레터 열다섯 번 낸 걸 어떻게 증명하겠느냐, 연애 소설 쓰는 연습을 했던 것 아니냐, 박혜인 옆자리는 내가 벌써 받아놓았다 등등. 좌중의 소란은 클럽 회장이 일어서서 입을 얹으로써 진정된다. 이 문제는 사건 당사자의 판결에 맡기자는 것이다. 박혜인이가 성큼 일어난다.

“오늘 초가을비 맞으며 찾아든 남이섬 노래방에서 꿈꿨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오는군요. 우리 시절에는 러브레터야말로 청춘남녀의 알싸한 마음속 이야기를 전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지만 책과 씨름하느라 여념이 없었던 우리 엘리트대학 동지들에게는 강 건너 잔치였지요. 저는 제가 그 시절에 받았던 많지 않은 러브레터들을 지금도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머리 싸매고 고시준비하던 시절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되돌아보게 되는 것도 돈키호테처럼 험기차고 로맨틱한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되는군요.

어어, 뭐랄까요, 저는 제가 받은 모든 러브레터에 대해 답장을 써보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낸 답장은 펄프 종이 위에 써보낸 것이 아니라 상상의 구름 위에 써보낸 거지요.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랑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는 오늘 집에 가서 40년 전 이 편지들을 다시 꺼내 볼 것입니다. 엄숙하고 장중하게만 느껴지던 우리 엘리트대학의 역사에도 꿈과 낭만이 있었음을 보여준 추억들이 이제와서 더욱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서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의 프랑스행 항공기의 옆자리와 프랑스 여행 중의 열차 옆자리는 이 분들에게 배정해 드리고로 결심한 것입니다.”

열띤 박수소리가 터져나오는 가운데 신 화백은 콧등이 찡하고 아파움을 느끼는 것이었다.

“
그냥 바라보기만해도
가슴이 울렁거렸던 그녀였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옛날의 싱싱함은 가셨지만
거기에는 젊은 시절에 없던
잔잔한 미소와 넉넉한 표정이
깃들어 있다.

”



일러스트레이션 金多海(서양화02-07)동문

화랑가에서 있었던 한 동료 화가의 개인전을 축하하러 온다는 타이밍의 일치가 그의 결심을 도와줬다. 그러나 그로 하여금 오늘 낙산클럽의 용문산 산행에 참가하도록 이끌었던 동인은 무엇보다도 첫사랑의 여인 박혜인이었다. 그의 대학생활 4년 동안 먼발치에서 바라보기만 했고 그냥 바라보기만해도 가슴이 울렁거렸던 그녀였다. 1백50명 가량 되는 클럽 회원들 중 홍일점인 박혜인이가 석달 전에 駐佛 대사직을 끝으로 외교관 생활에서 물러난 후 낙산클럽 산행에 열성적인 참가의지를 밝혔다는 인터넷 뉴스레터가 그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움직였던 것이다.

신 화백의 부풀었던 기대는 오늘 아침 청량리역에서 일행을 만나는 순간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인사소개 시간에 자기가 제주도에서 올라왔다는 말로 대강 끝내려고 했는데 (한때 인권변호사로 이름을 날렸다는) 클럽 회장이 “엘리트대학의 무한한 가능성을 증명하는 로맨틱 아티스트 신 화백”이라고 토를 달았다. 내로라하는 유명인사들이 시골의 무명화가를 땀땀한 동창으로 인정이나 해줄지 약간 풀리는 기분이

“우리 엘리트대학 이단자여, 화가나 소설가나 오십보 백보니까”하며 색다른 우정을 토로했던 것이다. 다른 친구들도 왕년의 유명인사 치고는 꽤 소탈한 인상이다. 뉴스 주인공으로 나올 때의 무게 잡는 모습과는 달리 마냥 활달하고 털털한 표정들인 것이다. 학창시절의 분위기와는 다르다. 무슨 장엄비극의 주인공처럼 양미간에 힘을 주고 세상을 노려보던 그 준엄한 얼굴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는지 의아스러워진다.

천연스럽도록 자유분방한 박혜인의 언동도 신 화백의 눈을 의심케 한다. 박혜인 옆자리에 앉아있던 클럽 회장이 자리를 뜨는 잠시 사이에 어떤 친구 하나가 그 자리로 얼른 가서 앉았는데, 가까이 앉았던 이들에게서 “왜 노상 박 여사의 옆자리에 눈독을 들이느냐”는 핀잔이 날아왔을 때 (옛날 웬만한 남자들 거들떠도 안 볼 만큼 도도하던) 그녀의 응수가 걸작이었으니, “과부 옆자리는 엉덩이 들어밀고 먼저 차지하는 남자가 임자외다.” 이에 못지 않게 동석자의 입담도 걸작했으니, “유희공간 점유의 선취특권은 대한민국 민법이 보장한다네.”

가 정감어린 프랑스어의 참맛을 실어내는 것 같고 그녀의 화사한 미모에 어물린다는 느낌이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옛날의 싱싱함은 가셨지만 거기에는 젊은 시절에 없던 잔잔한 미소와 넉넉한 표정이 깃들어 있다. 박혜인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신 화백은 그녀가 이 같은 걸물인 줄을 더 일찍 알았다면 그 유치한 러브레터를 일곱 번이나 보내지는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한 남자가 박혜인 같은 여자 앞에 땀땀이 서기 위해 갖춰야 할 것에 대해 자기가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생각이다.

박혜인의 노래가 끝나자마자 마이크를 받아주는 이가 있어서 보았더니 아침에 신 화백에게 소설가라고 자기소개했던 친구이다. 고복수의 ‘썩사랑’을 부르는데 원래 구슬픈 곡조인 노래가 더욱 처량한 가락으로 흘러나온다. 노래를 마친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일장연설을 시작한다. 비감이 어려있으면서도 연극배우 같은 과장끼를 띤 어조이다.

“낙산클럽 동지 여러분, 제가 지금 ‘썩사랑’ 노래를 애절하게 목놓아 부른 것은 우리 낙산클럽 법정에 호소할 애절한 사연

동 정

수 상

▲白禹鉉(전기공학71졸 LG전자 사장)=지난 8월 23일 디지털 TV 방송의 핵심 기술 개발 공로로 미국 '텔레비전 기술과학 아카데미'가 수여하는 에미상 수상.

▲金鍾勳(건축69-73 한미파슨스 사장)=지난 8월 26일 피터 드러커 소사이어티가 수여하는 2회 피터 드러커 혁신상(사회적 책임부문)과 혁신 CEO상 수상.

▲文在完(공법81-85 한국외국어대 교수)=지난 8월 26일 한국언론법학회가 수여하는 제7회 哲宇언론법상 수상.

▲李承漢(SGS 11기 삼성데스크 홈플러스 사장·SGS 동창회장)=지난 8월 5일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대영제국 커맨더 훈장' 수훈.

인 사

▲閔丙天(정치52-56 북한연구소 이사장)=지난 8월 14일 임기 3년의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에 선임.

▲俞東濬(잠사56-60 한국단미사료협회장·수원지부동창회장)=최근 재단법인 부운장학회 이사장에 선출돼 지난 8월 14일

대학생 2백명에게 하반기 장학금 2억원 전달.

▲閔榮日(의학59-65 前아산병원 내과 과장·前건국대 교수)=최근 서울 논현동에 개원한 소화기전문 비에비스나무병원 원장에 취임.

▲安秉萬(행정60-64 前한국외대 총장·대통령 자문 미래기획위원장)=지난 8월 6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임명.

▲愼鏞碩(농화학61-67 2014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대외협력위원장·아시아올림픽평의회 부회장)=최근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부위원장에 위촉.

▲金正國(행정61-65 前문화일보 사장·서울외국어대학원대 명예총장·법대동창회장)=지난 8월 21일 열린사이버대 총장에 선임.

▲曹海寧(행정61-65 前총무처 장관·前내무부 장관·前대구광역시장)=최근 학교법인 영광학원 이사장에 선출.

▲金弘經(법학63-67 前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지난 8월 19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에 선임.

▲閔東必(물리64-71 모교 물리전문화부 교수)=지난 8월 25일 임기 3년의 기초기술연구회 제5대 이사장에 임명.

▲尹桂燮(상학64-68 모교 경영학과 교수)=지난 8월 14일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 등 3개 단체가 통합돼 내년 2월 탄생하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설립위원장에 선임.

▲金鍾兌(교육65-69 前싸이버로지텍 부회장·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 고문)=지난 8월 7일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에 임명.

▲柳正錫(행정66-70 前해양수산부 차관·인천대 석좌교수)=지난 8월 11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에 임명.

▲許丙基(약학66-70 현대리서치연구소 회장)=지난 8월 21일 직업훈련 기능대학인 한국폴리텍대학 제5대 이사장에 취임.

▲李炳享(독어교육67-73 前KBS 미디어 사장·KBS 비즈니스 사장)=지난 8월 26일 KBS 사장에 임명.

▲李鍾徹(의학67-73 삼성서울병원장)=지난 8월 1일 병원·의과대·연구소를 하나로 묶어 삼성그룹의 의료바이오산업을 이끌 어갈 삼성의료원장에 선임.

▲章洙弘(응용미술69-76 모교 디자인학부 교수)=내년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경기도에서 열리는 제5회 세계도자비엔날레 총감독에 임명.

▲張太平(사회70-77 前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국가청렴위 사무처장)=지난 8월 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임명.

▲姜泳元(정치70-74 대우인터내셔널 사장)=지난 8월 19일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임명.

▲孫福作(사회복지70-74 前LG선물 사장·前대우증권 사장)=최근 토러스투자증권 사장에 선임.

▲姜英世(영어교육70-74 국민대 교수)=최근 한국언어학회 제17대 회장에 취임.

▲金寧中(의학76졸 국립경찰병원 진료3부장 직무대리)=지난 7월 28일 국립경찰병원 진료1부장에 임명.

▲崔漢龍(의학71-77 삼성서울병원 비뇨기과 교수·진료부원장)=지난 8월 1일 삼성서울병원장에 선임.

▲李康斗(행정원71-73 前국회의원·국민생활체육전국게이트볼연합회장)=지난 8월 13일 국민생활체육협회 제17대 회장에 선출.

▲金亨基(경제72-76 前KTBNetwork 상무·前한국기술투자 대표)=지난 8월 6일 한국벤처투자 제2대 사장에 선임.

▲鄭鎮星(사회72-76 모교 사회학과 교수)=지난 8월 4일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부의장에 선출.

▲陳東燮(교육72-76 모교 교육학과 교수)=지난 8월 19일 임기 3년의 한국교육개발원 제14대 원장에 취임.

▲金煥錫(사회73-77 국민대 교수)=최근 4년 임기의 유네스코 세계과학기술윤리위원회(COME-ST) 위원에 선임.

▲田容鶴(법학73-77 前SBS 8시 뉴스 앵커·前국회의원)=지난 8월 6일 한국조폐공사 제20대 사장에 취임.

▲金承禧(약학74-78 식품의약품안전청 독성연구부장)=지난 8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생물약품국장에 임명.

▲金素延(의학74-80 국립경찰병원 진료2부장 직무대리)=지난 7월 28일 국립경찰병원 진료2부장에 임명.

▲李承勳(의학74-80 국립암센터 연구소장)=지난 8월 5일 보건복지가족부 제7기 암정복추진기획단장에 위촉.

▲徐載鎭(사회75-82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경남대 겸임교수)=지난 8월 8일 임기 3년의 통일연구원 제10대 원장에 선임.

▲李南麟(철학81졸 모교 철학과 교수)=지난 8월 6일 국내 철학자 가운데 처음으로 프랑스 국제철학원(IIP) 종신회원에 선정.

▲諸成鎬(법학77-81 중앙대 교수·뉴라이트 전국연합 공동대표)=지난 8월 8일 정부의 인권 외교활동을 지원하는 임기 1년의 인권대사에 임명.

▲李春熙(행대원79-85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지난 8월 11일 전라북도 새만금·군산경제구역청장에 임명.

▲朴南基(국어교육80-84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전문위원·광주교육대 교수)=지난 7월 29일 광주교육대 제5대 총장에 선출.

▲金鍾成(행대원81-83 前국가보훈처 차장·국가보훈위원)=지난 8월 4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 임명.

▲許洪(경영82-86 前엔씨소프트 부사장·前NHN 최고재무책임자)=지난 8월 7일 NHN 서비스 대표에 선임.

▲黃仁竣(경제85-89 前우리투자

증권 IB사업부 상무)=지난 8월 7일 NHN 최고재무책임자(CFO)에 선임.

▲金暎湜(AIP 33기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지난 8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 국립중앙과학관장에 임명.

▲金熙坤(ACAD 55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실장)=지난 9월 1일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겸임교수에 선임.

▲成始結(ACAD 55기 한국공항공사 부사장)=지난 8월 19일 임기 3년의 한국공항공사(KAC) 제9대 사장에 임명.

▲趙守鎬(회화47입 한국국제서법연맹 회장)=지난 8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제주현대미술관 초대로 '전통과 창신 - 墨調의 세계' 전시회 개최. 개회식에는 제주도 金泰煥도지사를 비롯, 서울에서 예술원 金洙容회장, 李壽成 前국무총리 등 50여 명 참석.

▲鄭秉起(농경제52-57 前세계은행 농업전문컨설턴트)=지난 9월 15일 경기도 용인시 토속음식점 '종구면' 기흥구청점에서 회고록 '長兄·偏母·家傳清白'(지

구刊) 출판기념회 개최.

▲金在浩(생물교육53-57 가톨릭대 명예교수·명동안과 원장·선산안과연구재단 이사장)=최근 선산안과연구재단 소식지(통권 11호) 출간.

▲李星珍(교육53-57 모교 교육학과 명예교수·대한민국학술원 회원·한국행동과학연구소장)=지난 9월 5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창립 4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徐桂淑(기악56-60 모교 기악과 명예교수·음대 동창회장)=오는 9월 1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경희대 徐桂玲교수와 함께 피아노 듀오콘서트 개최.

▲鄭相元(회화58-64 동양화가)=오는 9월 24~30일 서울 인사동 모로갤러리에서 '從心所欲' 작품전 개최.

▲文相翕(화학공학64-68 모교 화학공학부 교수)=최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14차 국제촉매학술대회 개최.

▲鄭喜成(국문64-68 前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시인)=최근 다섯 번째 시집 '돌아다보면 문득'(창비刊) 출간.

▲崔錫珍(지리교육63-67 국제환경교육연구소장)=최근 국회 환경포럼과 공동으로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또 올해 환경교육진흥법 입법화와 차후 시행에 대한 종합연구보고서 발간 예정.

▲安炳燦(신대원75졸 언론인권센터 이사장·본보 논설위원)=지난 8월 26일 서울 인사동 관훈클럽 세미나실에서 '1인 미디어의 현장을 듣는다'는 주제로 간담회 개최.

▲朴明潤(보대원74-76 한국과인트리클럽 총재·한국청소년연구소 이사장·관악회 이사)=지난 8월 1~4일 경기도 가평군 유스캠프타운에서 제43회 전국대학생 하계수련회 개최.

▲李相起(서양사학81-87 한겨레신문 선임기자·아시아기자협회장·본보 논설위원)=오는 10월 6~10일 서울, 울산, 강원도 백담사 일원에서 '기후변화와 아시아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아시아기자협회 포럼 개최.

▲朴恩卿(기악83-87 한영신학대 교수)=지난 9월 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全環嬋(기악83-87 백석예술대 교수)과 함께 피아노 듀오 연주회 개최.

▲禹相浩(서양화89-93 남서울대 겸임교수)=지난 8월 13~19일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센터에서 'Deep·Dim(깊은·희미한)'을 주제로 개인전 개최.

▲張哲浩(AIP 22기 대조전설 대표)=지난 8월 21일 명지대에서 'UWB 전송기술을 이용한 고속 전력선 통신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공학 박사학위 받음.

▲張哲浩(수원고농43졸)=지난 8월 22일 별세.

▲李琬夏(경성약전45졸 前성균관대 부총장)=지난 8월 18일 별세.

▲柳柄奭(의학49졸 침산의원장)=지난 8월 5일 별세.

▲李圭範(의학56졸 서울의과학研 명예이사장)=지난 8월 11일 별세.

▲李鍾秀(응용미술54-63 前이화여대 교수)=지난 8월 6일 별세.

▲韓相淵(경제54-59 前범양상선 대표)=지난 8월 8일 별세.

▲邊熙載(간호67-71 前모교 간호학과 교수)=지난 8월 16일 별세.

▲孫龍燁(경제76-81 전남대 교수)=지난 8월 12일 별세.

‘동정’난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서울대 연구공원 219호
- 이메일 : snua@paran.com 또는 snua1969@empal.com
- 전화 : (02)886-2219
- 팩스 : (02)886-2218

행 사

신 간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 李御寧 지음



현대 한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李御寧(국문 52-56 중앙일보 상임고문)동문의 첫 시집.

문학평론가로 등단한 지 52년 만에 펴낸 첫 시집으로, 한평생 그의 문학에 녹아 있던 시정신을 엿볼 수 있다. 2006년 계간 '시인 세계'에 두 편의 시를 발표하면서 시인으로 공식 등단한 李동문이 대학시절 학보에 투고한 시부터 최근에 쓴 시까지 모두 61편의 작품을 모아 엮었다.

총 5부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1부에는 지난해 기독교로 귀의해 세례를 받은 李동문이 성경에 나오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쓴 시와 신앙시가 다수 포함돼 있다. 또한 산문집에 수록돼 널리 알려져 있던 시들도 함께 수록했다. <문학 세계사刊·값10,000원>

나비 눈물

— 崔文僖 지음



崔文僖(본명 崔慶林 지리 교육 54-58) 동문의 세 번째 소설집. 작가의 오랜 화두인 '인간 사이의

균열'에 대한 답안이 다종다양하게 펼쳐진다.

인물들 간의 적의와 원한이 발단이 되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마음 혹은 관계의 균열 상태를 보여준다.

표제작인 '나비 눈물'을 비롯해 지느러미, 꼬가리 궁전, 아침 장미, 웃음소리, 세상의 모든 그늘, 먼지 버섯, 비자림을 흐르는 바람, 푸른 장 등 9편의 단편을 만날 수 있다. <계간문예刊·값10,000원>

북한정치

— 李相禹 지음



한림 국제 대학원대 李相禹(행정57-61 본회 부회장)총장이 지난 2000년에 출간한 '북한정치입문'에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북한

의 문제들을 첨가해 새롭게 만든 책. 이 책의 구성은 총 3부로 북한정치의 체제와 기능, 변화 전망 등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이 다른 북한정치 서적과 차별화되는 것은 북한정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신정체제'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가 중심이 된다는 점이다. '신정체제'란 이 책에서 북한정치 체제를 설명하는 키워드로, 1인의 지도자가 신격화되고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체제로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에 의한 1인 독재체제에 대한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내용을 '신정체제의 진화(배경-발생-형성-확립-세습-발전 혹은 소멸)'라는 관점에서 재구성해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일 것이다. <나남刊·값24,000원>

나에게 반하다

— 安炳燦·안이영노 지음



한국일보 외신부장·파리특파원, 시사저널 발행인 등을 역임한 (사)언론인권센터 安炳燦(신대원

75쪽 본보 논설위원)이시장이 우리 사회의 나르키소스(Narcissus) 11명을 인터뷰 한 책. 지난 2007년 3월부터 5월까지 '안병찬의 하이킥 라이프-자가 성장형 인간의 도래'라는 제목으로 신문지면에 연재한 글을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했다.

이 책은 해금연주가 이꽃별, 미술작가 김창일, 거리의 사회자 최광기, VJ 김진혁, 의사 姜亨龍, 앵커 白智娟, 국회의원 鄭斗彦(무역76-80), 탤런트 李順載(철학 54-58), 노숙한 청년 최화성, 문화연구자 이종인, 평화운동가 임영신 등을 차근차근 인터뷰하고 마지막으로 安동문 자신이 인터뷰 대상자가 되어 지면에 등장하도록 구성했다.

安동문과 그의 아들(안이영노, 트렌드하우스 기분좋은 QX 대표)이 주인공 11명을 진다해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지 찾아나가는 부자 대담록이 인상적이다. <레몬刊·값10,000원>

보이지 않는 제국

— 尹相日 지음



서울종합법무법인 尹相日(법학73-77)대표변호사의 장편소설.

세계지배를 꿈꾸는 금융재벌의 음모와 그 음모를 파헤치는 로펌의 생존을 건 전쟁이 흥미

진진하게 펼쳐진다. 강하지 않으면 먹이가 되는 자본주의의 약육강식을 '한국의 존 그리섬'으로 불리는 작가의 날카로운 눈으로 그려내고 있다. 논리적이면서도 빠른 스토리 전개가 돋보인다.

이 소설은 보이지 않는 거대 권력에 맞서는 변호사들의 활약상을 그려내면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변호사들의 세계와 그 속에서 그들이 느끼는 인간적인 고뇌를 함께 전해준다. 사모펀드, 시민단체, 회계법인, 로펌, 정부의 경제부처를 비롯해 국가권력의 핵심까지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배후의 정체를 밝히는 과정이 긴박감 넘치게 펼쳐진다. <지상사刊·값11,000원>

연서

— 韓鎬澤 지음



소설가 韓鎬澤(미학82-86)동문이 백제 무왕의 성장기를 그려낸 역사소설을 펴냈다.

향가 '서동요'의 모티프를 바탕으로 백제 무왕의 등극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신화적 상상력을 더해 오락성을 충실하게 갖춘 픽션이다.

역사 속 인물과 사건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그 시대를 살았던 다양한 삶을 통해 백제와 일본과 신라의 역사를 재조명한다. 여러 문헌과 자료를 바탕으로 백제의 유물들이 가득한 일본의 아스카시대를 재조명하며 역사학적 재미를 선사한다. <달과소刊·값10,000원>

웃는 암소들의 여름

— 정현규 옮김



이 화여대 이화인문과학원 HK연구교수인 정현규(독문 85-91)동문이 핀란드 작가 아르토 파실린나의 장편소설을 번역했다.

'핀란드판 돈키호테'라고 할 수 있는 이 소설은 젊은 택시기사가 한때 전쟁영웅이었던 치매노인을 만나 함께 여행하면서 겪는 이야기이다. 기억을 잃어버린 채 자꾸 엉뚱한 일을 벌이는 노인과 그를 둘러싼 인물들이 펼치는 사건이 익살스럽게 그려진다. 택시기사와 노인은 어느새 '돈키호테'와 '산초'처럼 환상의 파트너가 되어 의기투합하게 된다.

이 소설에는 전쟁에 정춘을 바친 노인의 박탈감과 기억상실로 인한 존재의 불안, 파헤쳐진 농촌과 자본주의 사회의 냉혹한 현실

공연



서수민 비올라 독주회

— 9월 17일 예술의 전당

비올리스트 서수민(기악97-01 앙상블 에클라 단원)동문(사진)이 9월 17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레거, 슈만, 칼리보다, 비외탕 등의 작품으로 독주회를 개최한다. <공연문의:에인예술기획 586-0945>



박준영 바이올린독주회

— 9월 21일 예술의 전당

바이올리니스트 박준영(기악93-97 JK 앙상블·연 앙상블 단원)동문(사진)이 9월 21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생상스, 엘가, 슈만 등의 작품으로 독주회를 개최한다. <공연문의:에인예술기획 586-0945>

연지희 정기연주회

李芳淑교수 정년퇴임 기념

— 9월 22일 영산아트홀

피아니스트 李芳淑(기악61-

65 연세대 교수)동문의 정년퇴임을 기념해 연세대 제자들이 함께 하는 연주회를 마련했다.

오는 9월 22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 영산아트홀에서 리스트, 생상스, 라흐마니노프, 브람스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문의:피아노포르테 497-1973>



鄭元順 바이올린독주회

— 9월 22일 세종문화회관

바이올리니스트 鄭元順(기악85-89 상명대 교수)동문(사진)이 9월 22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브람스, 드뷔시, 모차르트, 스트라우스 등의 작품으로 독주회를 개최한다. <공연문의:에인예술기획 586-0945>



金祐廷 첼로 독주회

— 9월 29일 세종문화회관

첼리스트 金祐廷(기악89-93 서울시향 수석대행·한국페스티발앙상블 단원)동문(사진)이 9월 29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존경하는 Bach 선생님'을 주제로 독주회를 개최한다. <공연문의:에인예술기획 586-0945>

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자리하고 있다. <쿠오레刊·값10,000원>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 박강순 옮김



(실리아 샌디스)가 직접 이야기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을 돌파해낸 위대한 CEO 윈스턴 처칠. 그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외손녀

하는 처칠 리더십의 진면목을 살펴보는 책.

공군사관학교 교관, 로이터통신 온라인 기사를 지낸 박강순(영문92-94)동문이 우리말로 옮겼다.

이 책은 처칠의 돋보이는 용기와 넘치는 기개, 사람을 이끄는 힘과 놀라운 실천력을 14가지의 리더십 요소를 통해 철저하게 분석했다. 위기의 순간마다 특유의 돌파력으로 난세를 극복한 처칠의 리더십을 살펴보고 오늘날 비즈니스 세계에서 최악의 위기를 최고의 기회로 만드는 전략적 지혜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스미디어刊·값15,000원>

장학빌딩 건립기금 모금 운동은 계속됩니다

〈벽돌 한 장이라도...〉

계좌번호 : 국민은행 827-01-0248-017 / 신한은행 343-05-019330 / 농협 069-01-272391 [예금주 : (재) 관악회]

목표액 : 300억원

◆50억원

△임광수(기계공학48-52)

◆15억원

△신명규(생물교육48-54)

◆10억원

△강신호(의학46-52)

△곽영필(토목공학56-60)

△구평희(정치학47-51)

△김상하(정치학45-49)

△김은중(경제학59-63)

△김정식(통신공학48-56)

△김종섭(사회사업66-70)

△김형주(토목공학46-50)

△신창재(의학72-78)

△오동영(조선항공54입)

·김찬숙(치의학56-60)

△윤세영(행정학56-61)

△이준용(경제학56-60)

△정계영(상학61-66)

△정팔도(AIP 1기)

·이지행

△홍성대(수학57-63)

◆5억원

△김주진(법학54입)

◆3억원

△김병순(AMP 4기)

·이지호(의학77-83)

△이길여(의학51-57)

△정석규(화학공학48-52)

△조기호(화학교육54-58)

·이영자(생물교육56-60)

◆2억원

△남정현(건축학57-61)

△이종기(경영학69-73)

△장학순(토목공학46-50)

◆1억5천만원

△故김도창(법학43-47)

·목촌5부자

◆1억2천만원

△엄병운(외교학60-64)

◆1억1천만원

△성백전(토목공학52-56)

·김인순(화학공학54-58)

△수학과동창회

◆1억30만원

△박성훈(기계공학58-63)

◆1억원

△강순걸(법학54-58)

△곽동현(법학61-65)

△김두희(물리학52입)

△김문현(상학58-64)

△故김영경(기계공학52-56)

△김정철(건축학52-56)

·김정식(건축학54-58)

△김창식(전기공학53-57)

△나공목(상학56-61)

△남상용(건축학52-57)

△노인환(경제학54-58)

·故한화(가정교육60줄)

△류중희(기계공학53-57)

△명태현(기계공학46-50)

△박실상(AIC 9기)

△박희백(의학51-57)

△서정화(법학51-55)

△故손치무(대학원70줄)

△안성철(행정학58-63)

·손운숙

△故양은숙(간호학51-54)

△故오응현(섬유공학7-71)

·추경옥

△오홍조(치의학56-61)

△우인성(기계공학58-62)

△유상부(토목공학60-64)

△이금기(약학55-59)

△이상범(법학53-57)

△이수범(행정학56-60)

△이예식(약학46-49)

△이정상(상학59-65)

△이준행(섬유공학48-54)

△이지호(의학77-83)

△이해원(행정학51-55)

△장제일(전기공학59-63)

△장중환(의학69-76)

△전동용(수의학52-56)

△정윤환(임학56-62)

△정충시(화학공학72-76)

△조병우(섬유공학59-64)

△지원철(축산학73-77)

△최두형(행정학51-55)

△최상홍(기계공학54-58)

△최희장(섬유공학58-64)

△홍상옥(원예학83-87)

△보건대학원동창회

◆8천만원

△미술대학동창회

◆6천만원

△김윤택(경대원68-70)

△화학과동창회

◆5천30만원

△이종현(경제학59-65)

·신갑순

◆5천10만원

△박남식(SCS 2기)

◆5천만원

△공대식(기계공학56-60)

△김정희(약학57-61)

△김중기(생물교육51-55)

△김중서(경제학58-63)

△김중현(경제학55-59)

△류재명(AMP 34기)

△마국철(공업교육68-72)

△박명운(보대원74-76)

△박주탁(무역학69-74)

△손일근(법학51-64)

△안 훈(수의학53-57)

△오인석(행정학58-62)

△유종해(법학50-54)

△이도경(농학56-63)

·이찬진(기계공학84-89)

△이순석(약학61-65)

△이승준(섬유공학56-60)

·이청원(자원공학67줄)

△이운주(의학81-87)

·오지은(인류학83-87)

△이원규(농생물학58-63)

△이재원(상학55-59)

△이종대(천문기상학69줄)

△이형도(화학공학61-67)

·박효순(영어교육66-70)

△정대영(경제학51-55)

△정재봉(사회사업60-64)

△지창수(상학55-59)

△하권익(의학57-63)

△하상완(치의학64-70)

△허병하(상학58-62)

△홍예표(치의학65-71)

△황해근(토목공학54-60)

·故이금옥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

△농대 그린장학회

△농대 일산회

△한우리SJM

◆3천60만원

△원정수(건축학53-57)

·지 순(건축학54-58)

◆3천만원

△고원호(기계공학48줄)

△박홍일(영어교육60-64)

△심정윤(토목공학52-56)

△유석홍(무역학61-65)

·박영희(기약70줄)

△이경택(섬유공학57-61)

△이광식(약학66-70)

◆2천만원

△강학순(기계공학64-69)

△김원일(건축학61-65)

·최미혜(성악66-70)

△김재백(약학52-56)

△서병륜(농공학69-73)

△송명호(자원공학59-65)

△윤세극(경제학45-51)

△조갑주(경제학58-63)

·정정영(불어불문62-66)

△최정길(금속공학52-56)

◆1천5백만원

△김철순(조경학76-83)

△치불회

◆1천2백만원

△강웅선(치의학78-84)

△심영보(의학55-61)

△안동일(법학59-63)

△오상호(전기공학48-55)

△이내원(화학교육58-62)

△이재철(법학70-77)

◆1천1백50만원

△천남중(광산학65-69)

◆1천1백30만원

△신면우(의학50줄)

◆1천1백만원

△김상수(자원공학73-77)

·김태훈(건축학02-07)

△정해남(법학72-76)

◆1천80만원

△서병태(의학54-60)

△조내규(약학58-62)

◆1천70만원

△김정범(치의학60-66)

◆1천60만원

△박준옥(약학55-59)

◆1천30만원

△심이택(화학공학57-63)

△이영필(항공공학66-71)

△이형하(법학74-78)

△허성길(경제학60-64)

◆1천만원

△강신주(사회교육51-55)

△강신혁(문리66-73)

△강용현(법학71-78)

△강행언(토목공학61-65)

△권동은(FIP 4기)

△권혁웅(불어불문59-63)

△금진호(법학50-58)

△김 철(기계공학64-68)

△김기춘(법학58-62)

△김두만(상학59-63)

△김미령(약학74줄)

△김백준(수학62-66)

△김병린(토목공학55-59)

△김상호(법학72-76)

△김선양(중어중문84-88)

△김연호(화학공학71-75)

△김영갑(법학74-78)

△김영석(경제학60-66)

△김영재(공업화학77-81)

△김원배(동물학55-60)

△김윤중(약학64-71)

△김은식(국사학73-80)

·윤영옥(생물교육72-76)

△김일섭(경영학64-69)

△김재범(산업공학74-78)

△김주환(토목공학57-61)

△김진규(기계공학61-66)

△김찬욱(기계공학55-59)

△김철수(법학52-56)

△류태환(상학48-54)

△문대원(경영학71-75)

△문성훈(식품공학86-92)

△박덕칠(기계공학57-61)

△박명학(영어교육61-65)

△박중국(농화학57-63)

△박준우(의학75-81)

△박진희(무역학76-80)

△박창우(경제학80-84)

△백사익(채광학40-42)

△변상현(의학51-57)

△서계숙(기약56-60)

△석학진(상학58-64)

△설동섭(축산학53-57)

△신방호(경제학67-71)

△신윤식(사학55-59)

△안경상(행정학57줄)

·김정애(가정교육54-58)

△양배덕(전기공학57-61)

△양성철(정치학58-64)

△엄기영(사회학70-74)

△오병제(AMP 21기)

△오용섭(임학60-66)

△유희춘(상학49-55)

△윤영석(경제학58-64)

△윤희진(축산학63-67)

명예의 전당에 내 이름을!!

일반회원 10만원 · 이사 30만원 이상

△김건호(수의학70 - 74)
△김혜경(생물교육70 - 74)
△윤옥영(수학58 - 61)
△이기남(수학67 - 71)
△이진호(화학공학85 - 89)
△정성진(법학58 - 63)
△조귀장(사법학86 - 90)
·김주영(지리학92 - 97)
△조현래(대학원75입)

◆1백30만원

△김진억(법학55 - 60)
△문일환(치의학65 - 71)
△송진해(공업교육63 - 72)
△이명우(공업교육64 - 68)
△이종복(응용미술62 - 66)
△이태형(상학59 - 63)
△임한조(물리학67 - 71)
△조병철(섬유공학59 - 65)
△최동식(법학76 - 80)
△최명재(상학48입)
△현천욱(법학72 - 76)

◆1백23만4천5백67원

△김성수(농업교육63 - 67)

◆1백20만원

△강효식(치의학57 - 61)
△김영도(축산학68 - 75)
△김주현(의학65 - 71)
△김진원(건축학68 - 72)
△나명훈(의학76 - 83)
△이갑노(의학65 - 71)
△이상근(섬유공학74 - 78)
△이정우(AMPFRI 17기)
△이창건(전기공학49 - 54)

◆1백10만원

△김기섭(정치학69 - 73)
△김기영(ACAD 49기)
△김도현(대학원74 - 76)
△김지호(화학공학55 - 59)
△명동근(경제학45 - 52)
△박영원(지리학74졸)
△백 철(상학56 - 61)
△백낙운(독어독문56 - 60)
△변재용(토목공학75 - 81)
△원우현(행정학61 - 65)
△유종일(신대원72 - 74)
△유해덕(법학53 - 57)
△이경보(토목공학46 - 50)
△이두현(행대원74졸)
△이명훈(농경제학69 - 73)
△이정자(국어국문50졸)
△이종팔(경영학76 - 80)
△전영철(미학53입)
△조준래(AMPFRI 12기)
△최연근(중어중문67 - 71)
△허신행(농경제학62 - 66)
△홍성완(토목공학62 - 66)

◆1백5만원

△장경만(의학80 - 87)

◆1백9천원

△최인갑(금속공학57 - 62)

◆1백만원

△강구선(광산학63 - 67)
△강규석(물리교육58 - 62)
△강덕수(GLP 8기)
△강성현(치의학69 - 75)
△강영복(상학51 - 55)
△강원일(행정학59 - 63)
△강인구(수의학59 - 64)
△강정일(농경제학64 - 68)
△강종표(외교학76 - 83)
△강홍섭(화학공학59 - 63)
△고 건(정치학56 - 60)
△고광우(행정학53 - 58)
△고병우(경제학52 - 56)
△고호근(AMP 58기)

△곽 승(화학공학59 - 63)
△구재철(의학78 - 84)
△권광중(법학61 - 65)
△권순철(전자공학83 - 85)
△권이혁(의학41 - 47)
△김교성(전기공학51 - 55)
△김국일(토목공학63 - 68)
△김구복(법학69 - 73)
△김규형(약학53 - 57)
△김기수(행정학47 - 51)
△김노수(섬유공학45 - 52)
△김달식(법학53 - 57)
△김덕영(토목공학45 - 47)
△김덕원(수의학50 - 54)
△김덕중(외교학71 - 75)
△김도연(행정학58 - 63)
△김동찬(생물교육51 - 55)
△김명자(화학62 - 66)
△김방연(상학52 - 56)
△김상원(농경제학52 - 56)
△김석건(농경제학50 - 55)
△김석기(행정학64 - 68)
△김석준(기계공학72 - 76)
△김승권(기계공학68 - 72)
△김연호(영어교육67 - 75)
△김영기(법학54 - 58)
△김영배(농공학78 - 85)
△김영수(경제학58 - 62)
△김영일(법학60 - 64)
△김영재(법학57 - 62)
△김용식(건축학70 - 74)
△김용운(치의학62 - 68)
△김용찬(농화학57 - 61)
△김우동(계산통계72 - 79)
△김윤재(상학54 - 58)
△김익모(AIP 23기)
△김인규(정치학69 - 73)
△김인중(법학56 - 60)
△김일환(천문기상64 - 72)
△김재락(법학78 - 82)
△김정일(금속공학58 - 64)
△김종국(농화학63 - 70)
△김종욱(경제학58 - 62)
△김주용(전기공학58 - 63)
△김준팔(영어교육55 - 59)
△김중기(경제학54 - 58)
△김진우(약학54 - 58)
△김진호(법학57 - 61)
△김창국(법학56 - 60)
△김창순(경성여사범43입)
△김태현(제약학71 - 75)
△김태홍(화학교육71 - 79)
△김풍오(원자력공68 - 72)
△김학균(약학51 - 55)
△김현채(법학56 - 61)
△김형기(불어교육72 - 76)
△김형욱(AIP 37기)
△김형진(기계공학51 - 55)
△김호룡(법학48 - 52)
△김홍종(수학74 - 78)
△김화중(간호학63 - 67)
△김환수(법학52 - 56)
△김효종(법학61 - 65)
△김후란(가정교육53입)
△나도선(약학67 - 71)
△노승행(법학58 - 63)
△류종목(상학59 - 65)
△류철호(토목공학67 - 71)

△마인경(지리교육60졸)
△문광순(광산학60 - 64)
△문창국(정치학68 - 72)
△박국양(의학75 - 81)
△박석흥(불어불문63 - 67)
△박성숙(의학65 - 71)
△박성철(법학75 - 79)
△박순익(치의학66 - 72)
△박순호(AMP 43기)
△박승근(조선항공63 - 67)
△박승용(영어교육76 - 80)
△박양수(영어교육55 - 59)
△박영숙(CHCN 3기)
△박영철(AMP 40기)
△박인원(의학76 - 83)
△박재형(의학66 - 72)
△박종찬(공업교육71 - 76)
△박종철(물리학61 - 66)
△박준서(법학58 - 64)
△박해룡(상학58 - 63)
△박향숙(응용미술58 - 62)
△박홍일(영어교육60 - 64)
△배기선(AIP 25기)
△배상경(경제학56 - 61)
△배승환(기계공학58졸)
△배영한(상학49 - 58)
△백형배(화학공학47 - 53)
△변영삼(금속공학77 - 81)
△변종문(공업교육72 - 76)
△서광벽(재료공학73 - 77)
△석준형(물리학67 - 71)
△손완주(화학공학55 - 59)
△손환규(농업교육64 - 68)
△송병락(경제학59 - 63)
△송사일(농공학80 - 84)
△송인상(경성고상35졸)
△송종환(외교학64 - 68)
△송호룡(AIC 19기)
△신명중(법학80졸)
△신수정(기약59 - 63)
△신용삼(경영학73 - 77)
△신원식(행정학57 - 61)
△신정근(농경제학54 - 58)
△신필재(약학55 - 59)
△신혜순(가정교육47 - 51)
△신희명(물리교육49 - 54)
△신희섭(의학68 - 74)
△심장수(법학70 - 74)
△심재갑(행정학52 - 56)
△심한배(공업화학71 - 76)
△안재환(공예92 - 04)
△안치득(전자공학76 - 80)
△안취준(고고인류61 - 67)
△양해준(식품공학82 - 86)
△양호석(농화학57 - 63)
△엄영섭(화학66 - 70)
△엄준호(기계항공95 - 99)
△여운관(금속공학53 - 57)
△오경화(의류학81 - 85)
△오세종(경제학61 - 65)
△오윤덕(행정학61 - 65)
△오인석(전자공학57 - 62)
△오태환(법학53 - 57)
△우병규(정치학51 - 55)
△우세홍(생물교육60 - 65)
△우완식(경제학57 - 61)
△우종호(중어중문60 - 64)
△우효섭(토목공학72 - 76)

△유위종(농경제학72 - 80)
△유필상(전기공학66 - 73)
△윤근환(농학50 - 54)
△윤용철(경영학83 - 88)
△윤용혁(독어교육60 - 64)
△윤원진(HPM 6기)
△윤재석(화학교육71 - 75)
△윤정혜(화학교육59 - 63)
△윤중섭(농공학55 - 61)
△윤홍식(물리교육56 - 60)
△이경재(화학59 - 63)
△이계관(약학70졸)
△이광진(법학77 - 81)
△이규호(약학60 - 65)
△이근수(신대원69졸)
△이기봉(교육심리54 - 58)
△이기준(경제학55 - 59)
△이돈구(입학65 - 69)
△이동규(천문기상65 - 74)
△이병목(의학54 - 60)
△이병일(농학57 - 63)
△이삼휘(농화학66 - 70)
△이상욱(경영학86 - 90)
△이상필(치의학70 - 76)
△이석원(AIP 36기)
△이성호(농공학71 - 75)
△이승관(금속공학64 - 71)
△이승구(계산통계75 - 79)
△이영상(상학51 - 55)
△이영상(상학59 - 64)
△이용희(간호학75졸)
△이우연(정치학45 - 49)
△이의갑(영어교육70 - 75)
△이인혁(섬유공학54 - 58)
△이일훈(상학55 - 60)
△이장무(기계공학63 - 67)
△이재원(기약53 - 57)
△이재원(법학77 - 81)
△이정국(토목공학62 - 66)
△이정우(독어교육64 - 71)
△이정인(광산학59 - 63)
△이종욱(의학57 - 63)
△이주한(역사교육53 - 57)
△이중환(의학51 - 57)
△이진방(경영학67 - 71)
△이창호(기계공학55 - 61)
△이철영(상학63 - 68)
△이철주(상학59 - 65)
△이충웅(통신공학54 - 58)
△이학숙(회화54 - 58)
△이현식(화학73 - 78)
△이현재(경제학48 - 53)
△이형균(정치학59 - 64)
△이호인(응용화학66 - 70)
△이희숙(영어교육61 - 65)
△임광환(농경제학55 - 59)
△임미영(회화77 - 81)
△임승빈(건축학67 - 71)
△임이균(약학61 - 65)
△장관봉(응용미술56 - 62)
△장삼진(화학공학51 - 55)
△장성원(영어교육57 - 61)
△장원갑(기계공학63 - 67)
△장윤석(법학68 - 72)
△장찬기(HPM 8기)
△장철식(섬유공학49 - 55)
△장해창(법학74 - 78)
△장해실(성악69 - 73)

△전병일(영어교육66 - 73)
△전정구(경제학51 - 56)
△전종갑(천문기상64 - 68)
△전준수(토목공학61 - 65)
△전팔근(영어교육47 - 52)
△정광섭(상학66 - 74)
△정광현(독어교육71 - 78)
△정명희(의학65 - 71)
△정민섭(입학59 - 63)
△정병일(독어독문78졸)
△정병해(정치학49 - 53)
△정상조(행정학57 - 62)
△정소성(불어불문64 - 69)
△정영채(수의학56 - 60)
△정완호(생물교육58 - 63)
△정우식(항공공학80 - 84)
△정웅진(상학63 - 67)
△정원식(교육학48 - 54)
△정은구(법학58 - 64)
△정정길(행정학61 - 65)
△정효섭(사회학59 - 65)
△정홍숙(가정교육59 - 63)
△정희준(법학57 - 61)
△조무제(사대원65 - 67)
△조성근(행대원61졸)
△조영찬(중어중문74 - 78)
△조완규(생물학48 - 52)
△조장환(농학53 - 60)
△조현래(사회사업73 - 77)
△지상구(약학54 - 58)
△지철근(전기공학45 - 51)
△진성박(치의학75 - 81)
△진영춘(토목공학67 - 74)
△진홍일(외교학62 - 66)
△차원갑(화학공학48 - 53)
△최 연(섬유공학68 - 72)
△최병순(화학교육69 - 74)
△최병주(생물교육56 - 60)
△최우철(의학82 - 88)
△최종덕(물리학52 - 56)
△최종운(의학77 - 83)
△최창신(약학61 - 65)
△최향순(조선공학65 - 70)
△최효열(기약73졸)
△탁미선희(치의학76 - 82)
△하두봉(대학원56 - 58)
△한 영(치의학79 - 85)
△한정섭(건축학48 - 52)
△한철주(의학78 - 84)
△함중환(농업교육63 - 70)
△허정국(치의학55 - 59)
△현덕성(약학66 - 70)
△현임종(상학56 - 60)
△홍상희(응용물리65 - 72)
△홍성오(생물교육50 - 54)
△홍순겸(AIP 5기)
△황남주(물리학87 - 92)
△황선용(사회교육57 - 61)
△황성재(법학72 - 76)
△황승기(지구과학69 - 76)

◆80만원

△김재현(경제학69 - 73)
△박남훈(외교학68 - 75)
△서병규(행대원88 - 92)
△어 당(섬유공학68 - 72)
△우두현(상학61 - 67)
△유승규(기계설계76 - 80)
△이인재(지질과학64 - 72)

△장영일(치의학64 - 70)
△정상명(행정학68 - 72)
◆70만원
△이병효(공업교육63 - 67)
△이윤하(제약학77 - 85)
△하순봉(독어교육60 - 64)

◆60만원

△김신원(응용화학64 - 72)
△부영욱(HPM 13기)
△손두식(입학57 - 63)
△안임수(영어교육65 - 69)
△안재휴(광산학52 - 56)
△안태준(기계공학83 - 91)
△여인철(조선공학75 - 79)
△유종상(중어중문66 - 70)
△이계훈(농공학56 - 62)
△이범구(물리학69 - 73)
△이용팔(HPM 13기)
△이정구(의학59 - 65)
△이찬구(상학56 - 61)
△이현구(화학공학58 - 62)
△정태봉(작곡72 - 80)
△조달호(AMP 7기)

(이상 2005년 10월 1일부터 2008년 8월 19일까지 출
연해주신 분)

◆50만원

△김지영(식품영양69 - 73)
△문학도(경제학58 - 64)
△박시우(제약학69 - 73)
△박용희(상학53 - 57)
△부경생(농생물학60 - 64)
△심문섭(조소61 - 65)
△오제국(정치학75 - 79)
△장순근(지질과학65 - 69)
△한득주(행정학59졸)

◆40만원

△신동수(국사학82 - 89)
△유기수(물리학53 - 57)
△정강주(체육교육69 - 74)

◆30만원

△간영석(법학57 - 61)
△강영삼(사회교육59 - 63)
△공영석(약학57졸)
△권오윤(법학56 - 60)
△김동철(독어독문78 - 82)
△김봉호(치의학56 - 60)
△김부성(지리학73 - 77)
△김승규(SGS 7기)
△김영훈(행정학54 - 59)
△김인수(치의학47 - 51)
△김정홍(화학교육57 - 61)
△김종민(AMP 4기)
△김주일(의대전문44 - 48)
△김진문(경제학59 - 64)
△김전수(생물교육63졸)
△김형영(경제학56 - 60)
△문운용(상학60 - 65)
△민수광(법학60 - 64)
△민영기(물리학57 - 61)
△박영민(체육교육62 - 66)
△박영배(약학63 - 67)
△박유재(AMP 9기)
△박찬구(국어교육56 - 60)
△서관석(HPM 2기)
△서정희(경영학78 - 82)
△신규태(법학56 - 60)
△심윤식(화학공학68 - 72)
△양남식(지구과학73 - 77)
△오세순(농학53 - 57)
△오영표(공법학85 - 93)
△윤경숙(제약학87 - 91)
△윤봉순(전기공학54 - 58)

△이경우(법학76-83)
△이계수(섬유공학63-67)
△이대연(농공학69-76)
△이병락(기계공학68-75)
△이보환(법학61-65)
△이봉환(전자공학68-72)
△이사계(수학58-63)
△이상근(경제학53-57)
△이상우(수의학65-69)
△이선일(건축학61-65)
△이용우(상학61-65)
△이진근(치의학63-70)
△이형탈(사회학61-65)
△이현주(응용물리66-70)
△이홍식(지구과학68-76)
△임명옥(조소81-85)
△임병기(농학50-54)
△전상백(건축학53-57)
△정덕장(행정학59-63)
△조정현(자원공학64-73)
△차봉진(제약학75-79)
△차정균(행대원97-00)
△한방교(채광학55졸)
△한수양(금속공학63-71)
△허영(간호학74졸)
△홍형홍(농화학62-71)
△황진수(영어교육74-78)
△황창학(경제학55-59)
◆21만3천84원
△양승표(사학57-61)
◆20만1천8백원
△이용재(화학공학60-64)
◆20만원
△남복희(경성여사법43졸)
△박병학(재료공학69-73)
△박재원(원자핵공82-86)
△오성종(역사교육58-62)
△오지연(독어교육87-91)
△원상희(의학75-81)
△유천근(교육학60-64)
△이정민(영어영문59-63)
△이정태(생물교육55-60)
△임계숙(농가정학60-64)
△정준모(독어독문89-96)
△정현희(가정관리72-76)
△정흠배(수의학60-64)
△채미영(화학교육82-86)
△한인교(의학66-72)
◆15만원

△김호진(의학86-92)
△박영우(제약학70-74)
△이주현(전기공학94-98)
◆13만원
△송영호(물리학93-97)
◆12만원
△김영철(수의학82-91)
△이광용(영어교육61-63)
◆11만원
△함성일(대학원02-04)
◆10만원
△강동호(국제경제82-86)
△강석주(수의학55-59)
△강선구(무역학76-80)
△강영태(전자계산78-82)
△강정모(농경제학65-69)
△강철훈(화학80-84)
△강춘근(AMP 53기)
△강태선(제어계측80-84)
△고일석(보대원69-71)
△고종인(항공공학84-88)
△고창범(제약학82-86)
△공기석(제어계측79-84)
△공인섭(기계설계78-82)
△곽장근(GLP 3기)
△권기현(교육심리53-57)
△권명희(지리학64-68)
△권영제(AMP 62기)
△권혁선(전기공학72-76)
△김경원(경제학58-64)
△김경호(무역학70-74)
△김규호(역사교육55-60)
△김대식(물리교육57-61)
△김동일(제어계측78-82)
△김두현(화학90-94)
△김만근(농화학55-59)
△김명진(국어교육93-97)
△김병각(약학53-57)
△김상호(기계공학77-81)
△김성욱(광산학58-64)
△김성준(경영학74-78)
△김성태(농공학64-71)
△김시정(간호학95-99)
△김영규(치의학69-76)
△김영대(AMP 56기)
△김영민(전기공학85-90)
△김영애(약학58-62)
△김영의(치의학83-89)
△김영필(행정학53-57)

△김옥자(약학62-66)
△김완규(AIP 15기)
△김원산(국제경제84-89)
△김원훈(농화학49-58)
△김윤정(소비자학93-97)
△김은아(의류학85-89)
△김인수(수학교육70-74)
△김인신(AMPP 6기)
△김일호(GLP 13기)
△김재은(교육학50-54)
△김정광(상학55-60)
△김정훈(AMPFRI 1기)
△김종남(자원공학78-82)
△김종성(행정학67-71)
△김진배(경영학81-85)
△김창구(대학원81졸)
△김창현(고고인류69-74)
△김철민(재료공학74졸)
△김철환(AMP 5기)
△김태형(전기공학94-98)
△김관수(기계공학53-57)
△김필순(가정교육48-52)
△김학채(조소83-87)
△김형노(컴퓨터공95-02)
△김홍구(전자공학81졸)
△김홍배(상학66-71)
△김희춘(응용미술62-70)
△노은배(의학78-84)
△노희정(경성법전41졸)
△노영희(약학64-68)
△나용수(원자핵공94-98)
△남기룡(법학56-63)
△남기섭(경제학76-82)
△남기영(지질과학57-61)
△남상률(전자공학70-78)
△남원식(금속공학70-74)
△노경원(공업화학84-88)
△류관희(농공학63-67)
△류혜진(대학원03-05)
△명인재(물리학75-80)
△목영진(사학63-67)
△문경옥(ACPMP 4기)
△박명배(상학64-68)
△박명호(약학53-57)
△박상철(사회교육85-92)
△박성용(조선해양97-01)
△박신통(항공공학69-77)
△박영일(제약학90-94)
△박완규(철학63-67)

△박장순(역사교육52-57)
△박재율(AMP 36기)
△박정규(의학81-87)
△박종남(사법학93-98)
△박종운(원자핵공83-87)
△박주철(대학원94-97)
△박창남(정치학48-52)
△박전경(기계공학52-56)
△방수자(농가정학62-66)
△배재류(조선공학81-85)
△배주원(경제학55-59)
△백선빈(응용미술60-64)
△백양빈(농화학58-64)
△백홍석(간호학82졸)
△서영숙(화학57-61)
△서정필(AIP 33기)
△성영창(AMP 26기)
△성진호(전기공학95-99)
△성전경(행정학58-64)
△송광섭(수학교육77-81)
△송동호(경제학00-06)
△송명옥(치의학86-90)
△송미령(소비자학95-99)
△송순영(정치학52-56)
△송원길(의학58-64)
△송종익(농경제학55-59)
△송희성(약학60-64)
△신기범(경제학61-67)
△신재기(ACAD 18기)
△신현덕(수의학80-84)
△신현식(영어영문56-60)
△심풍수(기계설계76-80)
△안용수(화학공학73-77)
△양수연(소비자학98-04)
△양인회(농학58-64)
△양재봉(기계설계86-90)
△양제형(경제학76-80)
△양현하(약학66-70)
△엄재구(AMPP 6기)
△여봉구(의학77-83)
△오도영(ALP 1기)
△오병무(약학62졸)
△오연균(법학76-80)
△오장수(보대원89-91)
△오중환(농학56-60)
△왕준환(농경제학93-01)
△원복종(불어불문68-72)
△유동일(섬유공학75-80)
△유연수(수학57-63)

△유영재(약학82-86)
△유영해(경성법전46졸)
△유정자(식물학60-64)
△육효순(간호학79-83)
△윤경원(섬유공학92-98)
△윤상래(수의학62-66)
△윤석민(국어국문83-87)
△윤여상(약학57-61)
△윤영준(체육교육84-91)
△윤주선(SGS 4기)
△이경우(ACAD 37기)
△이규원(기계공학64-68)
△이내주(사법학81-85)
△이담호(의학81-87)
△이두석(상학55-59)
△이명규(토목공학85-89)
△이민수(법학51-55)
△이복상(치의학81졸)
△이상록(의학83-89)
△이상엽(화학공학82-86)
△이상직(농학56-60)
△이성우(경영학72-76)
△이숙연(약학48-52)
△이승자(영어교육60-64)
△이영복(물리학52-56)
△이영순(성악62-66)
△이윤환(토목공학52-56)
△이의웅(치의학59-65)
△이익삼(체육교육58-63)
△이장섭(의학51-58)
△이정옥(화학공학53-57)
△이종구(화학공학84-88)
△이종국(성악59-65)
△이종석(수의학53-57)
△이준관(전기공학95-99)
△이준환(토목공학52-56)
△이창원(의학85-91)
△이충구(법학59-63)
△이충우(대학원84-86)
△이태경(조선해양98-03)
△이태희(보대원87-90)
△이한규(경제학92-98)
△이희영(농공학50-54)
△이희철(체육교육86-90)
△인용균(원자핵공86-90)
△장동완(행정학64졸)
△장동철(경영학86-90)
△장문현(전기공학57-63)
△장봉희(경대원90-92)

△장성욱(경영학98-04)
△정명자(간호학57-60)
△정순섭(사법학83-87)
△정순착(건축학59-63)
△정연근(AMP 58기)
△정영진(가정교육68-72)
△정영한(치의학72-78)
△정의순(AMP 4기)
△정재호(ACAD 61기)
△제영혜(의류학71-75)
△조병훈(치의학78-84)
△조성윤(경영학76-80)
△조성일(상학62-67)
△조신광(사학55-61)
△조철호(사법학91-95)
△주동건(건축학67-71)
△지주선(정치학54-58)
△진우정(치의학70-78)
△채성희(국악76-80)
△채운돌(컴퓨터공99-07)
△채정희(국악78-82)
△최홍(수학66-74)
△최대환(무역학60-66)
△최동환(조선항공64-68)
△최병호(원자핵공70-74)
△최송식(전자공학68-72)
△최송용(임학60-65)
△최영균(기계공학79-83)
△최정필(지리교육62-66)
△최종석(정치학00-05)
△최준열(농생물학85-89)
△최준영(전기공학82-86)
△최환석(항공공학83-87)
△하영수(AMPP 2기)
△한대희(응용생물95-01)
△한명희(국악64졸)
△현석두(경제학57-61)
△홍관석(치의학89-93)
△홍승호(불어불문57-62)
△홍우일(약학61-65)
△황경진(법학52-56)
△황귀봉(FIP 1기)
△황석근(지리교육51-55)
△황원근(수학66-70)
△황의철(ACAD 5기)
△황희연(건축학74-79)
〈이상 2008년 4월 3일부터 8월 19일까지 출연해주신 분〉

회 장 단

△부회장 李金器= 1백만원
△부회장 金明子= 50만원
△부회장 金鍾燮= 1백만원

상임이사

△崔炳五 AFB동창회장= 20만원
△辛秉烈 GLP동창회장= 20만원

평생회비

〈이사〉 △강정모 농대65
△김강년 문리54 △김경호 상대70
△김동규 의대72 △김명준 자연74
△김명환 사대78 △김재영 공대82
△도준호 문리61 △박병천 자연61
△백준식 HPM17 △서병석 AMR1
△송진웅 사대79 △엄상호 AMP18
△유제춘 의대85 △이춘자 간호54
△이형오 공대60 △주홍수 공대76
△차규현 ACAD4 △채성희 음대76
△한대우 사회75 △황병오 공대83
△황철홍 의대77

〈일반〉 △강석준 行院78
△곽우식 AMP64 △구자공 공대71
△구종서 공대70 △권숙인 사회81
△김성심 의대57 △김성희 농생89
△김영화 사대83 △김준화 자연01
△박지윤 사회97 △송위섭 상대63
△신극정 GLP16 △안순철 자연99
△안장현 사회83 △오규창 농대77
△윤지학 미대96 △이대연 농생99
△이병락大院84 △이응돈 농대85
△이종구 공대84 △정재창 상대58
△제금련 약대68 △조성욱 경영94
△조용완 공대68 △최대근 공대91
△하우식 AIP32

이 사

◆인문대 △강현구79 △김석희72
△문상원72 △박태영74 △손예철69
△신용길72 △안형환82 △오광호73
△오정택82 △이상걸81 △이창화82
△전원배73 △조철원76 △진경년76
△진준현77 △최갑수72 △최규식73
△한봉희77 △허영재77 △홍종선75
◆사회대 △권용발74 △김 영79
△김구섭72 △김용숙76 △김재천73
△김재홍69 △김진국78 △노정석87
△민병립71 △박경재74 △박상룡83
△박성희75 △박종국73 △박찬욱72
△손영철74 △신철식73 △양현아84
△염주영77 △유성록82 △유성엽60
△이상용74 △이승훈74 △이원섭69
△이종현73 △이철순60 △장덕진61
△장환빈73 △정병재78 △정석구77
△조기제78 △주진혁77 △최영기73
△최형근69 △황영철85 △황정욱85
◆자연대 △강종희77 △금종해76
△김영진83 △박동완73 △박명홍77
△박천웅77 △안영인84 △유건호78
△윤성화74 △이상욱78 △이상희81
△이신두76 △이영우73 △이용학74
△이재철71 △이한용79 △이한형73
△전덕영72 △정현미82 △조수경74
△지상술87 △최진우75 △홍광현77
◆간호대 △김영숙75 △김정민83
△김정희84 △김종숙79 △남혜경79
△박관순55 △박명자56 △박성애66
△박인숙81 △이선자61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2008년 7월 납부자 / 연회비 : 이사(08.5.26.~6.30)·일반(08.5.26.~7.1)
원내 숫자 : 입학년도(미확인시 졸업년도)－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경영대 △강준수75 △강중구82
△김학식76 △남수현87 △박구용75
△박정래72 △반용음77 △성락현76
△안수현77 △오필현79 △위성갑76
△윤병은72 △윤주환85 △윤철수69
△이국진77 △이동호77 △이윤호73
△이인철87 △이인환79 △이재영78
△이종팔76 △이창근70 △이현봉68
△임근상60 △장영철76 △전용배82
△조성문84 △전한우79 △최병철74
△최진원85 △한선구81 △한종철79
◆공대 △강남식73 △강운식77
△강일구50 △강정환66 △강효순68
△고재웅52 △곽상철76 △구명회72
△구영호72 △권도엽72 △권명욱76
△권수봉75 △권오동69 △기종식77
△김 철58 △김교성51 △김국진66
△김내현74 △김대욱76 △김덕중72
△김동성73 △김두훈78 △김병열72
△김석홍81 △김선복62 △김성철70
△김성철73 △김성환83 △김승평68
△김영식66 △김용한65 △김우식60
△김원일61 △김익홍67 △김일진54
△김재근73 △김재홍43 △김정욱64
△김종규81 △김종술66 △김종찬54
△김종호57 △김진무65 △김진의64
△김창시83 △김창호72 △김전환78
△김철화68 △김태문70 △김태정69
△김태형83 △김학규72 △김한성81
△김해웅72 △김현대70 △김형남60
△김호성61 △김환정71 △남인희77
△노무수63 △노승택62 △노용래85
△노정선62 △노태전69 △노태환74
△도동섭55 △류영석86 △류용호73
△문규철69 △문영환75 △문우택57
△문잔국73 △문창호74 △박광순74
△박규원75 △박기찬64 △박덕철57
△박동혁79 △박병국82 △박병종65
△박삼진73 △박상언71 △박석호71
△박선원66 △박세화84 △박영길78
△박영복63 △박용규58 △박인석63
△박재승60 △박종찬71 △박찬빈60
△박철완76 △박호건69 △박화춘76
△박흥철51 △백문석85 △백병훈70
△백준기60 △변동필75 △변영로60
△변영삼77 △변창훈70 △서갑수65
△서경석56 △서동원70 △서태석76
△석동균74 △성우경86 △성창모75
△손민영62 △손석광75 △손승태67
△손종권71 △송병록78 △송부호61
△송원철73 △송원표77 △송인규83
△송재병66 △송주영73 △신근식66
△신덕철68 △신동식72 △신선호66
△신성수79 △신양호71 △신원기66
△신윤승74 △신중호79 △심재동61
△심재원66 △안기주63 △안덕주61
△안병제65 △안태환75 △양 갑68
△양금현74 △양기정67 △양점식78
△양화섭78 △염유신79 △오병태54
△오수익63 △오신남60 △오창석69
△우상선72 △우진태79 △유경희62
△유기준65 △유동일75 △유영면72
△윤극노62 △윤명철74 △윤선현66
△윤정호69 △윤추성61 △윤희용73

△은희범82 △이 선59 △이 철68
△이건우74 △이경우60 △이경한65
△이금석59 △이대운64 △이면기64
△이민화72 △이백용74 △이범창52
△이병하69 △이상진72 △이석준83
△이석형70 △이성규58 △이신욱52
△이영근72 △이영진84 △이운형65
△이원성77 △이원세71 △이은우70
△이의종74 △이인석70 △이재규69
△이재은61 △이재형76 △이재훈70
△이중홍59 △이진우60 △이창로78
△이창호55 △이철근58 △이철환75
△이춘호67 △이태수77 △이형도61
△이흥택72 △임동신66 △임민수66
△임성빈63 △임승빈67 △임주환68
△임형규72 △장광훈78 △장동욱49
△장세창65 △장영배72 △장원초74
△장철식49 △전병대68 △전병진71
△전효택67 △정 준82 △정구동67
△정명섭76 △정명식50 △정명채85
△정성환77 △정수현69 △정유나78
△정재근74 △정철진74 △정태호66
△조상순72 △조영주74 △조장대69
△조재민78 △조재현75 △조정원73
△조형제51 △주성준85 △지인호76
△차동득73 △채명규65 △채효식79
△최광열63 △최규운68 △최기언71
△최길선65 △최돈구75 △최동욱78
△최두환79 △최병길72 △최병인60
△최병홍78 △최영식47 △최완철69
△최용선82 △최인규72 △최진엽79
△최형남66 △최홍영69 △한영철77
△한원택75 △허 염70 △허수영70
△허영호71 △허욱렬70 △허진욱81
△한희현59 △홍대형65 △홍성완62
△홍순찬69 △홍태희69 △홍호식69
△황 철71 △황대석58 △황성조63
△황성호70 △황인섭73 △황태인71
△황택수73

◆농대 △강대경82 △강대구79
△강철기76 △고경일61 △구요한63
△김기선77 △김남훈58 △김명진78
△김상호56 △김석구59 △김성수63
△김성태64 △김시한60 △김양재78
△김영진53 △김일종69 △김정렬65
△김종훈67 △김진호82 △김택현65
△김현구50 △김훈동63 △문철명60
△박경호68 △박근배75 △박동선58
△박선홍66 △박정도64 △박종주66
△박주성78 △박준걸71 △박항만75
△배근성60 △사공문72 △서광섭79
△서기호60 △서득성58 △서상교76
△성수일66 △손현수76 △손환규64
△신두철70 △신자철65 △안수구73
△양재승70 △오승관77 △원종식60
△유문일66 △유시우61 △유용률66
△윤석룡64 △이강은81 △이규재50
△이덕남69 △이두이66 △이무영69
△이병복64 △이삼취66 △이상영65
△이석영71 △이석한82 △이승겸75
△이승인84 △이연숙65 △이영권60
△이영래63 △이용환63 △이원덕60
△이은종59 △이임영81 △이장섭52
△이준재57 △이희석57 △이희수60

△임순만62 △장규섭61 △전도철78
△정을규61 △지근진58 △진대경85
△채수근54 △채제천64 △천기만70
△최광순71 △최정락61 △한승국72
△한태룡68 △홍성표56 △황무돈61
◆문리대 △강신성65 △고 건56
△고광희67 △구월환60 △구자강68
△구평희47 △김 명67 △김경진71
△김관식56 △김광수64 △김대성61
△김병호66 △김상하45 △김성태62
△김수진57 △김영문64 △김재봉64
△김정린65 △김정환61 △김종환60
△김창현69 △김한출62 △나병욱46
△남영우68 △노재봉53 △문동성69
△문창극68 △민경덕59 △박건우61
△박경석55 △박상태59 △박영소66
△박용길66 △박용안57 △서목식69
△성희웅64 △손복조70 △송대성69
△송민순68 △송주상70 △송창범71
△신상우64 △신영철57 △신정용61
△신준희57 △신종식60 △양이훈65
△엄영진63 △오광균70 △오병남59
△우병규51 △우성규63 △유재천57
△윤상철55 △윤호미61 △윤홍근63
△이계오73 △이길준62 △이민섭59
△이반영56 △이병형67 △이성덕56
△이수찬66 △이수홍49 △이승렬67
△이영일58 △이용태63 △이원영69
△인태오57 △임형두57 △장문호64
△장부일69 △장영수63 △전중수52
△정 광62 △정광선64 △정명수64
△정병대71 △정병해49 △정영운60
△정용두53 △정학성65 △조용국66
△조유전62 △조창진70 △주승택63
△진홍일62 △전승걸58 △최건수66
△최동식62 △최명욱65 △최영희61
△하영기44 △한기호57 △한영우57
△홍순길61 △홍원희65

◆미대 △고문자62 △권석봉81
△김연수76 △김영대67 △김창수82
△민철홍54 △박경희58 △박주영66
△배형경74 △백문기46 △송유라72
△신광석64 △신용태59 △윤재준83
△이금령76 △이병석58 △이성은82
△이정선68 △이홍구85 △임홍순48
△정경원71 △정지환60 △조성애64
△조정승59 △한상돈81

◆법대 △강병섭68 △강신욱63
△강영규48 △강재철77 △강현안74
△강호성83 △강희철81 △고왕석61
△고의영77 △곽동현61 △권남혁67
△권동렬59 △김병위68 △김갑현50
△김경립60 △김경태63 △김귀동70
△김규복69 △김기전59 △김덕영60
△김덕진73 △김동찬77 △김병국66
△김상철66 △김선환66 △김성수68
△김수목83 △김영란75 △김영욱72
△김영일60 △김영재57 △김영훈60
△김완섭65 △김완식71 △김용원59
△김인겸82 △김정기62 △김준규75
△김진세61 △김창엽64 △김철수52
△김태현46 △김한주79 △김허남49
△김형수77 △나경원82 △나양명86
△나정욱59 △남기춘79 △노영재78

△동현철60 △문성우75 △문영국65
△문희남74 △민병국57 △민수광60
△박동섭60 △박동현70 △박성근86
△박순용63 △박영근60 △박용수68
△박은수75 △박정규57 △박정수84
△박준서58 △박찬홍60 △박현문71
△박현순73 △박홍우70 △박홍우72
△부구욱70 △서승일67 △서정석65
△서창희82 △성백현78 △성순제66
△성시웅77 △소병철78 △손기선70
△손기호79 △송대원87 △송선현60
△신영길61 △신원구66 △신창수70
△신호철61 △심장수70 △심재갑52
△안경환66 △안병우66 △안영도65
△안용득62 △양승규56 △우성만76
△유기준78 △유남석76 △유원규71
△유원석71 △유창수68 △유혁근62
△윤 탁61 △윤경희65 △윤영철56
△윤준원67 △윤호일61 △은창용76
△이 서61 △이건종72 △이근식65
△이기웅50 △이동득59 △이동흙68
△이무룡65 △이상민60 △이상환78
△이성훈84 △이세형68 △이수길62
△이우근67 △이원구69 △이윤승71
△이재근82 △이재홍74 △이재환75
△이전오77 △이정택58 △이종일55
△이지수59 △이창복74 △이태운68
△이홍구53 △이희석72 △임 경78
△임태유59 △장기욱57 △정경영79
△정구환73 △정기용77 △정명호76
△정상명68 △정연수60 △정인진72
△정재룡65 △정진규65 △정해남72
△조대환76 △조승근70 △조준웅63
△조해근78 △주우식78 △진철목54
△채 윤78 △최승록73 △최재경61
△최창호84 △최죽봉63 △한광수65
△한대운70 △한명철73 △함영엽57
△현경대60 △홍경식70 △홍광식67
△홍성좌56 △홍진태52 △황인규79
△황형모71

◆시대 △권한수75 △김경수60
△김기주69 △김병무64 △김수형61
△김영국69 △김영애64 △김영진51
△김종원61 △김평래73 △김학희73
△김혜경70 △김홍섭73 △김흥기61
△목진식79 △목창수66 △민현식73
△민흥기59 △박강문63 △박경운73
△박봉상59 △박삼서69 △박세원70
△박승용76 △박승준63 △박영태67
△박재공62 △박주순69 △박태섭76
△박형준64 △방재욱68 △서범석71
△서정쌍71 △손성준65 △송정실67
△송호열79 △신용래56 △신차근68
△신혜순47 △오경환68 △오두범64
△왕문용66 △우근용65 △유자호68
△윤용섭61 △이광희66 △이기준67
△이동식72 △이동우65 △이민숙84
△이민자59 △이병호70 △이상권60
△이선준48 △이양자59 △이원강57
△이종완72 △이주환53 △이진수63
△이창득71 △이태우60 △이혜숙68
△이흥탁59 △이희호46 △장성원57
△정광삼58 △정기언72 △정미숙83
△정원식48 △조용복55 △최낙준61
△최돈형68 △최동환72 △최병선54
△최예종65 △최용준61 △최현섭59
△최희우68 △허영섭74 △홍지준74
△황규억67 △황승기69

◆상대 △강성원66 △구선희66
△권영식66 △권영정72 △권중배69
△김덕기52 △김명준62 △김승훈68

△김영식⁵⁷ △김영식⁶⁶ △김종락⁵⁷
△김종희⁶⁵ △김중수⁶⁶ △김하두⁶⁴
△김형덕⁵⁹ △남영태⁶⁵ △류해주⁶⁵
△박수환⁵⁵ △박철원⁶⁴ △박항천⁶¹
△박해룡⁵⁸ △배철호⁶⁸ △변병주⁶⁰
△변영일⁶¹ △서성석⁶⁵ △송병락⁵⁹
△송진호⁵¹ △신승철⁵⁹ △신정도⁶¹
△안국신⁶⁵ △어 준⁵⁷ △오강욱⁵⁶
△유권상⁶⁸ △유연근⁷⁰ △이규형⁵⁴
△이동원⁵¹ △이용성⁵⁶ △이용휘⁵⁷
△이의룡⁶⁶ △이인희⁶² △이재경⁶⁹
△이종각⁵¹ △이진우⁶¹ △장윤문⁶⁵
△장인주⁶⁹ △전문준⁶⁴ △정광섭⁶⁶
△정구현⁶⁵ △정대서⁷¹ △정재택⁵⁸
△정태성⁶⁹ △주주섭⁶⁰ △채경석⁶¹
△최 광⁶⁶ △최명해⁶⁸ △최영환⁶⁰
△최준환⁶⁶ △최형주⁶⁶ △최한기⁶⁸
△추한식⁵⁴ △현정택⁶⁷ △현해관⁶⁷
△황규백⁶³
◆생활대 △김대년⁶⁷ △문현경⁷¹
△박복순⁷⁰ △박혜선⁶⁰ △이효진⁶⁰
△정진호⁸³ △조해욱⁵⁹ △지금수⁵⁶
△전경희⁷⁸ △최순욱⁶¹
◆수의대 △김용팔⁷⁵ △김윤수⁷⁴
△김일웅⁶³ △남기용⁷⁴ △문 웅⁶⁴
△신현일⁵⁷ △염기선⁷⁴ △오효성⁷⁷
△이원철⁷⁴ △임정묵⁸² △정용근⁶⁷
△최병일⁵⁹ △최병조⁷⁶
◆약대 △강정훈⁶³ △김기술⁷¹
△김영택⁵⁸ △김영호⁵⁴ △김철호⁶⁸
△나도선⁶⁷ △도상복⁶¹ △류성호⁷⁵
△박명환⁷³ △박호걸⁷³ △반태환⁶⁵
△백철기⁶⁷ △신영철⁷⁹ △심규장⁷⁰
△오응준⁵⁸ △윤병길⁷¹ △이병권⁶⁰
△이상호⁶⁶ △이상구⁷³ △이성완⁶³
△이용연⁷² △이해정⁴⁶ △이형규⁷⁴
△임경택⁵² △장일무⁶² △정성욱⁷⁰
△조현영⁸¹ △최근욱⁷⁴ △홍성한⁷⁶
◆음대 △강정구⁶⁵ △김중석⁶⁷
△김형섭⁷² △김혜중⁶⁹ △변미혜⁷⁵
△심선화⁷² △이민정⁸³ △이오규⁷⁰
△이종일⁶¹ △전신주⁶⁷ △조 양⁷³
△조영남⁶⁴ △조장연⁶⁶ △최덕천⁷⁵
△최문진⁷³ △최선용⁷³ △허주화⁷³
△한정혜⁸³ △황의종⁷¹ △황화자⁶⁰
◆의대 △강세철⁴⁹ △강조웅⁶²
△강흥식⁷¹ △고영채⁷⁴ △권영현⁷⁴

△김규한⁷⁶ △김기락⁶⁸ △김동욱⁷⁸
△김성희⁷⁹ △김수신⁶⁹ △김영태⁶⁵
△김인구⁶⁵ △김재윤⁷⁹ △김현우⁶⁴
△김현철⁷⁸ △노총희⁷⁰ △문영규⁸³
△민경원⁷¹ △박경찬⁷⁴ △박경호⁴⁷
△박경환⁷¹ △박국양⁷⁵ △박문희⁴⁶
△박상규⁷⁴ △박용범⁸⁴ △박용원⁷⁷
△박용재⁶⁵ △박조열⁵² △박조열⁵²
△박호진⁷² △백낙환⁴⁴ △백문민⁷⁷
△손기섭⁵¹ △송제일⁷³ △안용민⁸⁵
△안재훈⁸² △안회영⁶⁷ △유 권⁷⁶
△유경상⁶⁴ △유세화⁶⁵ △유영성⁷⁰
△육정환⁸² △윤경애⁷⁹ △윤세희⁶⁸
△윤종현⁸³ △이 행⁶⁰ △이계평⁵⁹
△이광우⁷⁶ △이두한⁷⁶ △이병훈⁶⁰
△이상곤⁷³ △이순형⁵⁶ △이승훈⁷⁴
△이왕준⁸⁶ △이윤경⁸⁷ △이윤성⁷¹
△이재서⁸² △이정길⁶³ △이종구⁷⁶
△이종철⁶⁷ △이진용⁵⁹ △임용철⁸²
△임진호⁷³ △임현술⁷¹ △장동원⁷⁰
△정경해⁸⁴ △정진욱⁷⁹ △장필현⁸²
△정훈용⁸⁴ △정희연⁸² △조 준⁷³
△조병제⁷⁰ △최 윤⁷⁶ △최정연⁶⁸
△최진상⁷⁴ △최창식⁵⁴ △최현림⁷³
△추연명⁷³ △하재동⁵¹ △하재인⁴⁴
△하정훈⁷⁹ △한경일⁸⁴ △한규섭⁷²
△한덕종⁶⁹ △홍순찬⁷⁶ △홍영식⁶¹
△홍정곤⁷⁴ △황성욱⁸⁴ △황용승⁶⁹
△황의기⁷⁷
◆치대 △곽현희⁶⁸ △구창서⁵⁸
△김 무⁶² △김 현⁶⁷ △김관식⁶⁹
△김기국⁶⁴ △김봉호⁵⁶ △김영의⁸³
△김인수⁴⁷ △김정균⁵⁹ △김종열⁶⁰
△김종훈⁷³ △김진용⁶⁰ △김충배⁷²
△김태우⁷⁷ △도철호⁷⁹ △라윤영⁶⁰
△류경희⁶⁹ △민병희⁷⁴ △박광선⁶⁹
△박기성⁵⁵ △방수남⁶² △배원정⁸⁶
△배현성⁶⁴ △백승동⁷⁸ △성백균⁶⁴
△송 철⁷⁶ △송희준⁵⁴ △인병근⁶²
△안성훈⁷⁵ △안창영⁷⁸ △양재호⁶⁴
△오성진⁷² △우진오⁷² △윤창근⁵⁸
△이금룡⁵⁸ △이병우⁷⁶ △이수구⁶⁶
△이승환⁵⁹ △이용오⁶² △이재현⁵⁰
△이지화⁶¹ △이진규⁷⁸ △이혜자⁷⁷
△임문식⁶⁹ △임승찬⁶⁸ △정하익⁶⁴
△조기성⁷⁰ △주낙림⁵⁶ △진기열⁷⁷
△진윤수⁶⁰ △최순철⁷³ △최영희⁵⁸

△최종호⁷⁰ △탁미선⁷⁶ △허노정⁶⁷
△홍지원⁸³ △황영환⁷⁰
◆대학원 △김세재⁸⁵ △김신섭⁸⁴
△문두길⁸⁷ △문수진⁷⁷ △박동준⁸³
△박찬문⁷⁴ △송홍한⁶⁰ △신호수⁸⁵
△심 호⁸⁸ △이광재⁷⁸ △이노종⁷⁴
△이동근⁸¹ △이병갑⁷⁵ △이재봉⁷⁹
△전용기⁸² △정기성⁶⁰ △조대우⁷⁹
△조전근⁸⁴
◆경대원 △김우진⁶⁶ △박영휘⁹⁰
△양희석⁸⁶ △이기현⁷¹ △이병재⁶⁹
△장만기⁶⁶ △조현국⁷³
◆교대원 △윤종건⁷⁵ △최상범⁷²
◆보대원 △김덕성⁷¹ △김종오⁷⁹
△박희서⁷⁷ △안상선⁶⁰ △오장수⁸⁹
△윤용길⁷⁰ △최진석⁸⁶
◆사대원 △석용진⁶⁵ △이근웅⁷⁰
◆신대원 △정대수⁶¹ △조용직⁷⁰
◆행대원 △강병규⁷⁷ △곽대훈⁷⁸
△구기성⁸⁹ △반금환⁷⁰ △염돈재⁹⁸
△유정복⁸⁶ △육근열⁸¹ △윤오수⁹⁵
△이두현⁷⁴ △정영섭⁶⁶ △함용빈⁷³
◆한대원 △김동일⁸² △박상락⁸⁴
△사공호상⁸⁹ △원동규⁹⁰ △이재근⁷⁹
△임영호⁸⁴ △정동배⁹⁷ △최종수⁷⁵
◆AMP △곽종익⁴⁷ △권용관⁵⁸
△김동연⁵⁶ △김병설² △김영일³³
△김익현⁵² △김재욱¹¹ △김철한³
△김태균⁵⁹ △김학관¹¹ △김희연³⁷
△박대용⁵⁷ △박병일⁶² △박소범²³
△박순일¹³ △박인철⁴³ △박현수³⁶
△백정균⁶⁰ △시영길⁵⁵ △신현규⁵⁷
△안병근⁵⁰ △안용태⁴² △양수화³⁹
△어윤태⁵⁵ △오순택³⁰ △유병진⁴⁹
△유영재⁶⁰ △윤경원³³ △윤수복⁶³
△윤용하⁵⁸ △윤종수²³ △이경태³¹
△이동희⁵⁸ △이상복⁴¹ △이상수⁵³
△이상욱⁵⁷ △이승철³³ △이용호⁵¹
△이재하⁵⁵ △이정상⁴⁹ △이종철⁵⁶
△임인재¹⁰ △장기봉⁵⁹ △정구용⁴⁷
△정남연²¹ △정상기⁵⁶ △정준명⁵⁸
△조법선⁵³ △조병식⁵⁵ △조현재⁵⁸
△조형수⁵⁸ △최영보⁵⁵ △최왕언²³
△최진식⁵³ △태석배³ △허종근⁵⁹
△한진출³² △현창수⁵⁶
◆AIP △권영렬¹⁹ △김덕표³⁶
△김상진³¹ △김승겸¹⁶ △김진우²⁹

△김태호²⁶ △남형수³¹ △박영식²⁸
△박장춘¹⁸ △서영배²⁴ △성미숙²⁹
△송기은¹⁹ △엄우식²⁴ △여운창³²
△유영성³⁷ △윤여순²⁷ △이근희²⁶
△이동철¹⁸ △이명천³⁵ △이상구³⁰
△이상운¹⁶ △이상호³⁷ △이상희¹⁵
△이석준²⁷ △이억기³⁰ △이장호²⁴
△이종하⁹ △이준근³² △정선희³³
△정우택⁵ △조규승²⁰ △조성환²¹
△차동성² △최영환³¹ △최정남²²
△최정호¹⁷ △한미영³² △한수영³⁵
△허 현²¹ △홍원주³⁰ △황능웅¹¹
◆ACAD △강영욱⁵⁴ △강희간⁴⁴
△권대석⁶⁰ △김종웅³⁹ △박영순⁴³
△안필준⁸ △오정숙⁴³ △이동주⁵⁶
△이영호⁵³ △이종간⁵⁵ △이진영⁵⁶
△이철우⁶⁰ △이희상⁴⁵ △이희욱⁵⁵
△장세환⁵⁶ △전경애⁴⁷ △정종모²⁵
△정진호⁴⁶ △조건창⁴⁹ △최광주⁵⁵
△최동규⁵⁶
◆ABP △김선제⁹ △김원태⁵
△신상민⁴ △이 명⁸ △이충원¹⁷
△이판철³
◆SGS △김용태¹⁴ △김현수¹⁴
△노영일¹¹ △박종길⁶ △오현봉⁶
△우경선¹ △유장식⁶ △이용란¹⁴
△이우태¹⁴ △이재창⁴ △임경보¹¹
△임인호³ △형난옥⁹
◆APC △송기순⁴ △조성출⁵
◆HPM △고기완¹³ △권혁란⁴
△김광태² △김영식⁸ △박호영¹⁴
△부영욱¹³ △성치용⁴ △안호원⁶
△엄신희¹⁴ △유우평¹³ △윤종필¹⁶
△이경률¹⁴ △이창훈⁴ △이태수⁶
△정동화⁷ △최종기⁶
◆AMPP △박길완⁶ △신희백⁵
△오덕영⁸ △이귀복⁵ △최경락⁸
△최이기⁴
◆AIC △김석희³ △남홍건¹⁰
△박인주⁷ △박종렬³ △서재철¹⁶
△윤재영⁷ △이경호⁷ △이수영¹⁸
△이찬재⁶ △임봉순¹⁵ △장낙진¹³
△정홍채²⁰ △조병철¹⁹ △조성갑³
△최근수¹⁶ △최세근⁹ △최유섭¹¹
◆AFB △김종월¹ △박상택³
△성태섭¹ △심현옥⁵ △이동락¹
◆AMPFRI △강인중⁸ △김갑주³

△김경호¹⁵ △김외순¹² △김희정⁵
△류돈희³ △서정심¹⁸ △양준호¹⁴
△윤관선¹¹ △윤동노⁶ △한기영³
◆ACPMP △김익희² △박태영²
△정광식²
◆FIP △임광빈¹ △황귀봉¹
◆GLP △김명희¹¹ △김자빈¹¹
△김준호⁶ △나기용¹⁰ △노윤호¹²
△박현배¹² △배영민⁵ △배원섭¹⁴
△백승용⁵ △신기열⁴ △신명진¹³
△윤성석⁸ △이규태⁹ △이낙천⁹
△이흥순¹² △임광순⁷ △임병선¹⁴
△임철규⁸
◆ALP △송준영⁵ △이보청³
△임장현² △정유성⁶ △조동재²
△지장국²

일	반
---	---

◆인문대 △김상우⁸⁴ △김유나⁸³
△목정원⁸⁴ △박우현⁸¹ △변우식⁷⁷
△서현주⁸² △신상우⁸⁰ △안정민⁹⁹
△양현모⁸⁴ △오범석⁸² △윤성실⁸³
△이동일⁸⁵ △이승훈⁸² △이용정⁸⁰
△이일환⁷³ △임인호⁸⁴ △장영덕⁷⁸
△정지현⁸³ △조정래⁷⁰ △조해숙⁸⁵
△최기용⁷⁴ △황문영⁸⁴
◆사회대 △김주영⁸¹ △노창현⁸¹
△박근섭⁸³ △안 솔⁸³ △양종민⁸⁸
△윤동한⁸¹ △윤성업⁸¹ △윤혜지⁸³
△이수천⁹¹ △이용호⁸³ △이은호⁸²
△이지호⁸³ △장홍근⁸¹ △정슬기⁸²
△조병관⁸⁸ △최보선⁸¹ △홍승석⁸⁵
◆자연대 △권철안⁷⁷ △김강우⁸²
△김병수⁷⁴ △박정민⁸² △서인석⁸³
△신지은⁸⁴ △유준위⁹⁸ △이대관⁸⁴
△이병철⁸² △이보름⁸³ △이충렬⁸⁰
△최한구⁸² △홍한음⁸⁴
◆간호대 △도혜경⁸⁵ △박문희⁵⁹
△박미정⁷⁵ △신선옥⁸³ △안명희⁷⁵
△채영순⁷⁴ △최완희⁸⁴
◆경영대 △고윤경⁸⁶ △권정현⁸⁰
△김경화⁸¹ △김찬웅⁹⁴ △김대훈⁸¹
△안남기⁸⁷ △안호성⁸⁰ △윤지현⁸⁵
△임석우⁸¹ △임성균⁷⁷ △임정오⁸⁸
△정택환⁷⁴ △최상원⁸¹ △최종현⁷⁶
△최창식⁸⁵ △한주성⁸⁰ △허규만⁹⁷
△홍정화⁸³

◆**공대** △강길건⁶³ △강대룡⁷⁸
△강상우⁰¹ △강홍열⁴⁸ △고창준⁸²
△곽경현⁰¹ △곽덕훈⁶⁹ △곽우섭⁹⁷
△권순호⁰⁴ △권영하⁶⁴ △김기복⁷⁰
△김병훈⁹⁸ △김상규⁵⁹ △김상준⁹⁷
△김세준⁸³ △김여근⁷² △김영남⁰⁴
△김영진⁸² △김용익⁵⁰ △김재국⁰⁰
△김재동⁰¹ △김재형⁵¹ △김정근⁶⁰
△김종혁⁰² △김천욱⁵⁵ △김철원⁷³
△김관수⁵³ △김학봉⁵⁷ △노철웅⁶³
△노한신⁷⁹ △류수웅⁹⁷ △마종열⁸¹
△문승현⁷⁹ △박경철⁶⁹ △박명욱⁶⁷
△박병우⁹⁶ △박상서⁸³ △박순영⁰³
△박양수⁸³ △박용길⁸² △박윤희⁸⁵
△박재민⁰⁴ △박종후⁹⁵ △박좌룡⁰⁶
△박지용⁰⁴ △박지훈⁰¹ △박천경⁵²
△박홍근⁸¹ △박종식⁰² △배성환⁹⁵
△백사익⁴⁰ △백효석⁶² △서광욱⁹⁶
△서민우⁰⁰ △석기룡⁷⁰ △선우국⁷⁶
△성무경⁸¹ △송영수⁰¹ △송재국⁵²
△송재연⁹⁹ △송주인⁵¹ △심진보⁰²
△안재권⁹⁸ △안종태⁰² △안홍근⁰¹
△양민영⁶³ △오계환⁶⁴ △오세현⁵⁹
△우승민⁰² △우영석⁰² △유일상⁵⁷
△윤석용⁵⁰ △윤성욱⁰² △윤일용⁹⁷
△윤정묵⁶³ △이 혁⁹³ △이경훈⁶¹
△이기라⁰² △이기설⁴⁷ △이동선⁶¹
△이동욱⁰⁶ △이민희⁰¹ △이상철⁷⁶
△이석한⁶⁸ △이선호⁰⁴ △이영운⁷⁰
△이원무⁰⁵ △이윤용⁵⁶ △이인재⁰¹
△이인재⁰⁴ △이재희⁰⁴ △이정일⁰¹
△이종권⁴⁷ △이진형⁰⁶ △이진훈⁹⁹
△이태경⁹⁸ △이현규⁰⁰ △이희발⁷²
△임보성⁰⁶ △임종현⁰⁴ △임치영⁸⁷
△장병진⁵³ △장성주⁶⁰ △장웅재⁹⁴
△장원상⁰⁰ △장인호⁷² △전영일⁷⁶
△정미진⁰⁶ △정승우⁰⁴ △정영도⁹⁸
△정우석⁹⁸ △정재구⁴³ △정준식⁵⁶
△정진건⁶⁴ △정치권⁶⁰ △정형근⁷¹
△조남산⁶³ △조선용⁴⁹ △조성진⁰⁴
△조용범⁸³ △조정상⁹⁴ △조태훈⁷⁷
△주재호⁵⁸ △채규남⁴⁹ △최 욱⁸⁷
△최세진⁹² △최시정⁵⁵ △최영균⁷⁹
△최정근⁶⁵ △한광석⁶⁶ △한대희⁹²
△한승훈⁹⁶ △허규영⁰⁰ △허정훈⁹⁰
△홍경화⁰¹ △홍준희⁰⁴ △황세라⁰⁴
△황진웅⁰²

◆**농대** △고만기⁷⁷ △김용하⁷⁹
△김진희⁰⁴ △남택수⁸⁹ △박계정⁷⁷
△박종선⁷³ △박종효⁵⁸ △백유현⁵⁵
△변양석⁵⁹ △손병구⁶³ △송경호⁵⁶
△신민호⁴⁸ △신종복⁵⁴ △신해상⁶⁶
△안희성⁷³ △안희철⁶⁸ △윤인화⁵⁵
△이경훈⁰⁰ △이관희⁵⁵ △이규형⁵⁰
△이영호⁶⁸ △이육진⁰¹ △이인모⁶⁵
△이창규⁰⁵ △이택원⁵² △이형익⁶⁴
△장성호⁰¹ △전종갑⁷² △정연석⁴⁸
△정인모⁷⁰ △정종수⁵⁸ △조선종⁸⁴
△조수경⁷² △최선태⁵⁹ △최준영⁹¹
△최준호⁹⁹ △최태동⁷¹ △한규근⁶⁵
△홍종진⁵⁷
◆**문리대** △강영남⁴⁵ △김기근⁶⁹
△김동진⁶² △김무창⁶¹ △김석도⁵⁴
△김수용⁶⁴ △김진현⁵⁴ △김형렬⁵⁵
△남궁연⁵² △남대극⁶³ △남정길⁶¹
△명제영⁵⁵ △서종호⁵⁷ △송길상⁴⁸
△신동우⁷¹ △심양홍⁶⁴ △염상섭⁶⁶
△염승섭⁵⁷ △유연수⁵⁷ △윤무섭⁵⁴
△윤석구⁶¹ △윤태호⁶⁶ △이동우⁵⁵
△이우연⁴⁵ △이제섭⁷¹ △장영태⁶⁴
△정관철⁵⁹ △조성술⁵³ △조진형⁶⁹
△조창환⁶³ △조전식⁴⁵ △주영태⁶⁰
△채기원⁵³ △최순봉⁵⁵ △최옥영⁶⁰
△최희승⁶⁰ △현영욱⁶⁷
◆**미대** △고명진⁷⁷ △권순형⁴⁹
△김미혜⁷⁸ △김태욱⁶³ △김학두⁵¹
△김형진⁹⁸ △손복희⁶⁷ △이두리⁰²
△이정행⁰⁰ △이진민⁸³ △이혜원⁷⁷
△정탁영⁵⁶ △조규창⁷⁹ △한정용⁰⁵
△함영희⁷⁷ △홍순무⁵⁴
◆**법대** △곽영욱⁶⁸ △김경문⁰³
△김광원⁶³ △김기섭⁶⁴ △김동익⁵³
△김득환⁷⁹ △김복지⁴⁸ △김선현⁵⁸
△김승식⁵² △김양모⁵⁵ △김응완⁵⁵
△김종찬⁰³ △김주원⁸² △김주현⁰¹
△김지욱⁶¹ △김진석⁸⁴ △김희용⁶⁰
△나풍운⁶⁴ △류진열⁷² △박문수⁸⁵
△박성달⁵⁶ △박성민⁰² △박태기⁸³
△백 린⁵⁹ △서용은⁵³ △서차수⁵⁷
△손종대⁶⁶ △송경숙⁹¹ △신광렬⁸⁴
△유병호⁰² △유재성⁵⁹ △유해돈⁵⁵
△이복영⁶⁶ △이성재⁴⁸ △이술진⁶⁰
△이영이⁶¹ △이재덕⁸² △이준근⁵⁷
△임광섭⁰¹ △임진원⁹⁵ △정경호⁹⁴

△정재형⁵⁸ △정진섭⁷² △조해현⁸¹
△최혜인⁰¹ △추영일⁶¹ △한경수⁷²
△한명수⁷⁷ △한용기⁶² △한운섭⁵⁷
△황찬현⁷²
◆**사대** △강한필⁵⁹ △고경순⁶¹
△권오현⁷¹ △김기준⁵⁹ △김남옥⁵⁵
△김동학⁵⁴ △김병수⁵⁹ △김상수⁵⁷
△김성근⁴⁹ △김재은⁵⁰ △김점술⁸²
△김주경⁵⁵ △김주환⁶⁴ △김준환⁶¹
△김진후⁷⁴ △김찬우⁸⁹ △김혁수⁰³
△나민주⁸⁵ △류효선⁹⁸ △박 재⁴⁴
△박강희⁹⁵ △박노학⁵⁰ △박성익⁷⁰
△박제동⁷⁰ △박종대⁵² △박창만⁶⁵
△박희문⁵⁶ △백남춘⁵² △백영모⁹⁸
△백정범⁵⁸ △백진욱⁴⁷ △서동일⁰⁴
△손가은⁰³ △손영운⁸² △오석운⁶²
△유기웅⁵⁹ △유영비⁰³ △윤종상⁵²
△윤종상⁵² △이상규⁷⁹ △이상구⁶⁴
△이승립⁶⁶ △이영운⁵⁸ △이윤하⁶³
△이은필⁰² △이인화⁰⁵ △이정희⁰³
△이지선⁰¹ △이태근⁴⁹ △임고운⁰²
△임익규⁵³ △정호상⁵⁸ △조남진⁵⁸
△주경식⁶⁸ △진덕순⁴¹ △최정운⁸⁹
△하병권⁵⁷ △한상표⁵⁶ △한원영⁴⁹
△황 주⁸²
◆**상대** △강석권⁵⁷ △고학모⁵⁶
△곽영홍⁵⁷ △김동수⁵⁴ △김문환⁵⁷
△김선정⁵⁴ △김성열⁵⁷ △김승정⁶⁰
△김시왕⁵⁷ △김용성⁵⁷ △김창일⁵³
△박양규⁵⁸ △박원규⁵⁸ △박원준⁶³
△배종섭⁵⁸ △북한재⁵² △소재수⁵⁷
△신현직⁴⁵ △원무현⁵⁷ △윤록현⁵⁹
△이봉길⁵⁸ △이영일⁶⁰ △이영주⁵³
△전영배⁵⁴ △정광홍⁵⁷ △정찬철⁷⁰
△최준철⁵⁹ △최진재⁶⁰ △표학길⁶⁶
△한병희⁶⁵ △허남수⁶⁰ △황창기⁵⁴
◆**생활대** △김성은⁸³ △김지연⁰²
△성미애⁸⁵ △송민희⁰⁴ △신수경⁹⁴
△오광숙⁶⁰ △유영화⁰⁴ △전상숙⁸¹
△전영숙⁷⁸ △정주영⁰⁴ △정현주⁰¹
△조현순⁸² △조혜경⁷⁴ △조혜자⁶⁰
△최선희⁷⁸
◆**수의대** △구본훈⁵⁴ △김태선⁰³
△김태희⁵⁸ △윤석효⁵³ △이병욱⁴⁷
△이정학⁶⁰ △조광영⁵⁴ △조기형⁴⁹
◆**약대** △강석훈⁰⁴ △김병근⁵³
△김상미⁸⁵ △김영식⁷⁴ △김용성⁶⁵

△김용정⁵⁸ △김종윤⁵³ △김흥대⁵⁹
△문기욱⁸⁵ △박태선⁰⁴ △박한일⁴⁷
△박홍재⁴⁹ △백우현⁵⁵ △서정화⁰⁴
△송희성⁶⁰ △신복영⁷² △안홍진⁰⁴
△양중익⁶⁶ △이문형⁴⁷ △이병국⁵⁵
△이인순⁷⁰ △이일영⁵⁶ △이홍주⁶¹
△전길순⁵² △최운정⁷⁷ △최현주⁵⁴
△하영완⁰² △허진중⁶¹ △홍우일⁶¹
◆**음대** △김명희⁶⁴ △김소연⁹⁴
△김순옥⁷³ △문영애⁶⁵ △박노경⁵⁴
△오애리⁸⁶ △윤진영⁶⁴ △윤현주⁶⁷
△이명희⁷⁰ △이민나⁰⁰ △이영민⁰¹
△이해식⁶⁶ △조환희⁹⁸ △최승용⁷⁸
△홍명숙⁷⁴ △황해영⁶⁰
◆**의대** △김원희⁵⁶ △마대중⁰⁴
△박용양⁸⁴ △선우용상⁰⁴ △신효승⁰⁰
△이은혜⁷⁴ △이의준⁰⁴ △이재영⁰⁴
△이호성⁷⁰ △전동수⁴⁴ △정규철⁵¹
△조두영⁵⁵ △추아정⁰⁴ △한명준⁸³
△홍기정⁸¹
◆**치대** △강신규⁶⁵ △김선태⁷⁴
△김성범⁰⁴ △김재형⁷¹ △김현태⁷⁶
△배석호⁰⁴ △배정인⁰⁴ △성소래⁹⁹
△신춘식⁷² △안성모⁶⁸ △우형식⁵⁹
△유세정⁵¹ △장동재⁷⁹ △전혜림⁸⁵
△정영한⁷² △정인환⁶⁰ △정호길⁷¹
△조병훈⁷⁸ △주관철⁵⁹ △허상완⁶⁴
△하현석⁹³ △한보균⁶⁹ △한영복⁵⁸
△황정일⁶⁴
◆**대학원** △김용구⁶⁰ △김철수⁷³
△류갑희⁸¹ △박재윤⁸¹ △변종영⁷¹
△송호용⁹⁵ △원종국⁸⁶ △이동선⁸³
△채종근⁹¹ △최문순⁸⁴ △토모쿠니⁰¹
△홍삼표⁹²
◆**경대원** △이범신⁶⁹
◆**교대원** △정병관⁶⁹
◆**보대원** △박경우⁰⁵ △이현영⁰³
△최용어⁶⁷ △한서경⁶⁵ △황금복⁷⁶
◆**사대원** △김기수⁶⁴
◆**행대원** △강석준⁷⁸ △김정신⁰³
△남호현⁸² △이기관⁸¹ △임동완⁰⁰
△지동하⁸⁸ △채양미⁸⁶ △홍석철⁶⁴
◆**환대원** △고성하⁷⁷ △이민영⁸⁴
△황보영춘⁸³
◆**AMP** △김 호⁵⁵ △김강정⁴⁸
△김경환³¹ △김교철²⁵ △김명립⁶⁴
△성백환⁶⁰ △손성섭⁴³ △신용무²⁶

△신종식⁶⁴ △신종규⁴ △윤태하³⁴
△이규범⁴¹ △이인영²² △이정대⁶⁴
△이종철¹⁰ △이진선³⁶ △이현섭²²
△장영섭¹⁴ △정용근⁴⁵ △지대섭⁵⁶
△최진석⁶¹ △허신구²
◆**AIP** △김경원¹⁴ △김장근¹⁵
△김재열¹⁶ △김진수²⁹ △박영욱¹⁵
△손창수³⁸ △유은목⁶ △유재훈³⁸
△조태웅¹⁸
◆**ACAD** △고광섭⁶⁵ △고완섭⁶⁴
△공운현⁴⁷ △김수만⁵⁶ △김원근⁶⁵
△김인국⁶⁵ △박대열⁵⁸ △송선근⁴⁹
△이경환⁶⁴ △이범창²⁹ △이용대⁶³
△임채균⁶⁴ △임충규⁴⁵ △차영준⁵²
△채준석³² △채항석¹⁰
◆**ABP** △김영기³⁰ △이상락⁴
△이수현⁸
◆**SGS** △임청규¹⁶ △최호운¹⁷
◆**CHCN** △문순자¹¹
◆**APC** △황경태³
◆**HPM** △권차남⁵ △김광화⁹
△김남수¹⁴ △이영완¹ △전명덕¹
△조영식¹⁸ △한훈섭¹⁰
◆**AMPP** △이종만⁵
◆**AIC** △박 훈¹² △성진용¹⁰
△신양인²⁴ △윤종묵¹⁷ △이상석²⁴
△조익현²²
◆**AFB** △이계주⁶
◆**AMPFRI** △김정훈¹ △류영진²²
△백두철⁹ △양동수⁶ △유재만²
◆**ACPMP** △김재철⁴ △김태구⁴
△민평기⁴ △심형구⁴ △이승렬⁴
△이용철⁴
◆**GLP** △김명기¹⁶ △김미애¹⁶
△김용직¹⁵ △김우관¹⁴ △김종필¹⁶
△김태형⁹ △연건희⁴ △이동진¹⁶
△이준형⁵ △정인태¹¹ △최길운¹⁶
△홍영화¹⁶
◆**ALP** △박진재⁷ △박찬일⁷
△백진현⁷
◆**SPARC** △강흥서⁵ △김달수¹
△박승식⁶

7 월 계 : 52,220,000원
평생회비 : 18,300,000원
입 회 비 : 420,000원
총 계 : 1,109,520,170원